

행정간행물
25090 - 33246 - 44 - 98008

공군

www.airforc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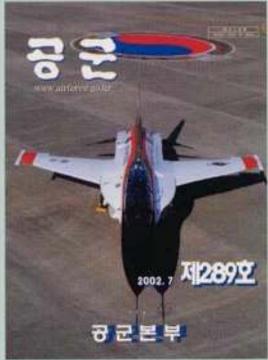


2002. 7

제289호

공군본부

2002. 7. 제289호 목차



www.airforce.go.kr

지휘봉		3
참모총장 지휘지침		4
이달의 호국인물	공군대위 박두원(朴斗元)	5
공군은 지금		6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9
칼럼	디지털 기술로 열어가는 항공우주시대	10
기획특집/항공우주시대를 향하여	폐할 수 없는 선택, 우주전	12
	미래 우주전과 공군의 대비	16
Air Power	미 공군 교리(1) - 전략공격(Strategic Attack)	20
항공기 열전	C-400(REIMS F406 Caravan II)	23
호국보훈의 달 기획연재	공군중군문인단사(2) - 공군 종군작가들의 전쟁소설	24
Zoom In	하늘의 119,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28
비상출격	디에고 가르시아의 하늘(2)	30
현장탐방	사이버 공간에서 푸른 하늘로	32
	꿈은 여전히 그의 손에 남아 있었다	34

추억의 사진 한장	조종사 생환훈련	35
문화가 현장	한국의 춘화(春畵)	36
AIR@ARTS	이탈리아 대중음악 속의 飛行, 사랑 찾아 하늘을 훨훨	38
책으로 읽는 세상	그저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41
찾아가자 인터넷	자연으로 돌아가자!	42
기지극장	컬러 텔레비전 개국 시대물 - 해적, 디스코왕 되다	43
노래의 날개 위에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44
마음으로 읽는 글	두 바퀴로 달리는 길	46
마음의 양식	修己와 安人	48
의무상식	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하세요!	49
기상전망대	기상 재해가 많은 7월에	50
Green Air Force	뜨거운 7월, 환경 친화적인 여름나기	51
법무상식	공군인이여 비겁자(?)가 되라	52
장병문예	짧은 날의 인생론	53
	논산훈련소 강병재 목사님께	54
	참모총장기 태권도대회를 마치고	55
이달의 독립인물	안재홍(安在鴻)	56
이달의 문화인물	성삼문(成三問)	56
알립니다	작전사령부 역사기념실 자료수집 외 2건	57
퀴즈로! 퍼즐로!		58
문화가 소식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 외 2건	59



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대 욱



본인은 온갖 어려움 속에 혼신의 노력으로 추진해 온 F-X 선정 작업이 사실상 일단락된 것을 전 공군인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제 우리 공군의 몫으로 주어진 F-15K 적기 전력화 과업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종 결정 및 사업집행 승인 못지 않게 중요한 F-15K 적기 전력화를 위해 우리 공군 전 장병이 그 후속조치를 위해 전력투구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F-X 사업의 적기 전력화는 전 공군인의 합심노력과 통일된 의견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F-15K가 전력화되어 조국 영공수호의 핵심전력으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까지 각자 맡은 바 소임완수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각별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참모총장 지휘서신 4호 중에서

指 揮 指 針

- 全方位 軍事對備態勢 確立
 - ▲ 최고의 전비태세 완비
 - ▲ 한·미 연합작전태세 강화
 - ▲ 전쟁 이외의 작전능력 신장
 - ▲ 최상의 작전지원태세 유지

- 未來指向的 空軍力 建設
 - ▲ 미래전 대비 교리·부대구조 발전
 - ▲ 전략형 전력체계 확충
 - ▲ 정보화·과학화 기반 구축
 - ▲ 항공우주군 도약기반 조성

- 人間 中心의 指揮管理
 - ▲ 기본이 바로 선 공군인 육성
 - ▲ 전문인력 양성 및 적재적소 활용
 - ▲ 창의적 임무수행 환경 조성
 - ▲ 복지증진 및 사기양양

- 先進 空軍文化 定着
 - ▲ 「행동하는 선진 공군문화」 계승 발전
 - ▲ 「한마음 공군정신」 창달
 - ▲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상 구현

先進 精銳空軍 育成

공군대위 박두원(朴斗元)



1926년 경북 경주 출생. 제일 학도의용군 중 유일한 조종사. 일본 다찌하라히 육군 비행학교를 졸업한 박두원은 조국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의용군에 지원,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있는 육군 헌병대에 입대하였다. 육군으로 근무 중 동료들로부터 전투조종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자신이 습득한 조종술을 조국의 하늘에 바치는 것이 더욱 값진 일이라 생각하고 상관과 협의, 공군 전투조종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걷기로 하였다.

81회 출격, 눈부신 전과

휴전협정 논의 후 지상전에서는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1952년 초, 대대적인 재공세를 위해 대량의 병력과 물자를 만주로부터 전선으로 수

송해오는 적의 보급로와 보급품 집적소에 대해 우리 공군은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었다.

공군 최초의 비행단으로 눈부신 활약을 벌이고 있던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에 배속된 박두원 중위는 1952년 2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81회의 출격을 감행,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보급로 차단작전, 철로 폭파작전, 보급품 집적소 공격작전에 참가하였다.

조국을 사랑한 성난 독수리

한편 하늘에서는 그토록 성난 독수리였던 그는 전란 속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에게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가져 보급된 양말과 내의 등을 기지 주변의 고아들에게 나누어주는 따뜻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는 언제나 후방 국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동포들의 비참해진 생활에 대한 그의 분노는 작전에 쏟는 맹렬한 폭격 속에서 폭발하곤 하였다.

박두원 중위는 출격개시 후 6개월만인 1952년 8월 2일, 흐린 날씨 속에서 동부전선의 적 보급품 집적소 공격임무를 위해 출격하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의 대공포에 피탄, 기지로 귀환하던 중 공중폭발하여 애기와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다. 박두원 중위는 전사 후 대위로 추서되었으며, 1952년 10월 15일에는 군인의 최대 영예인 을지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

R.O.K.



Air Force

1 2
3 4
5 6
7 8
9 10

- 1 2002년 전반기 지휘관 회의 개최
- 2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 보훈병원을 위로방문한 김대욱 참모총장
- 3 2002년 주임원사 회의 개최
- 4 공군본부, 보안기강 확립 결의대회 개최
- 5 제3훈련비행단, 호국영령 추모행사 실시
- 6 737기상전대, 공주대학교와 군·학 교류 협력 조인
- 7 제15훈련비행단, 활주로 피해복구훈련 실시
- 8 제5전술공수비행단, 폭발물 처리 시범훈련 실시
- 9 57공군수송지원단, 무사고비행 1천시간 기록
- 10 제16전투비행단 216비행교육대대, 4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R.O.K. Air 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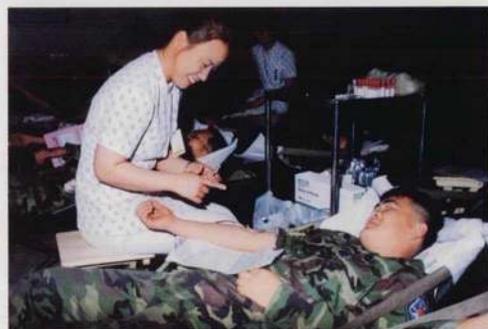


11

12 13

14 15

- 11 방공포병사령부, 모범병사 가족초청행사 실시
- 12 제18전투비행단, 육·해·공군 모범장병 비행단견학 행사 실시
- 13 제3훈련비행단, 예비역 조종사 부대초청행사 실시
- 14 교육사령부, 재단법인 87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 15 제3훈련비행단, 사랑의 헌혈행사 실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군,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공군인들이 펼치는 국민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재난 구조 및 복구작업, 의료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자원 봉사활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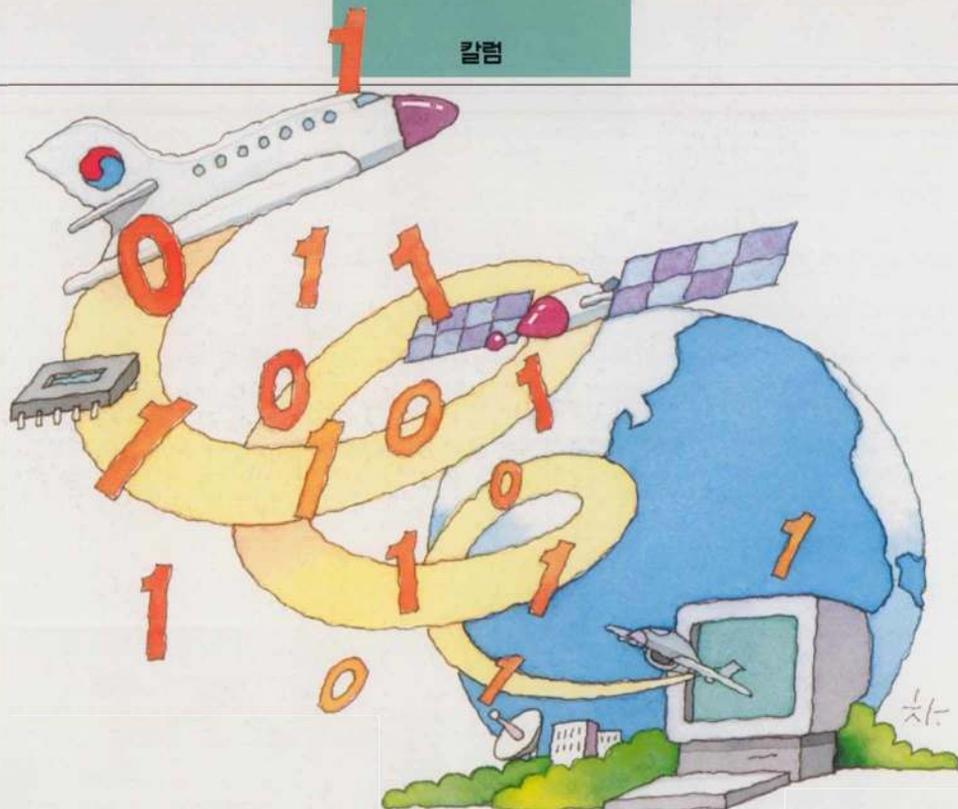
언제, 어느 곳에서도 든든한 국민의 보호자로, 웃음 띤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공군!

그들의 정성과 사랑이 국민들에게는 더없는 신뢰를 안겨준다.

- 1
- 2 3
- 4 5

- 1 3대 공군가족 탄생(왼쪽부터 아버지 최상훈 예비역 상사, 할아버지 최윤창 예비역 병장, 최준영 이병)
- 2 3 제17전투비행단, 제18전투비행단 지역농가 농번기 일손지원
- 4 제15혼성비행단, 월드컵 성공기원 거북이 마라톤대회 개최
- 5 제30방공관제단,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디지털 기술로 열어가는 항공우주시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김 승 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전에는 공상과학소설에서나 가능하였던 일들이 속속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성능 그래픽 기술을 토대로 한 가상현실 기술들은 만화나 영화의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통한 예술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제품을 설계 개발하는 산업분야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분야에서는 컴퓨터의 발전 초기부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더 가볍고, 더 빠른 항공우주비행체의 효율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항공기의 효율적 외형 설계 및 안전성 해석, 각종 해석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로켓 및 인공위성의 설계 개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잉777 항공기 개발시 활용되어 유명해진 디지털 목업(mock up)을 활용한 개발기간 단축 및 절감은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항공우주 비행체의 설계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미국 국방성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산하에 DMSO(Defence Modeling and Simulation Office)를 두고 M&S(Modeling and Simulation)로 대변되는 디지털 기술을 국방 여러 분야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M&S 기술은 국방전략 수립, 각종 무기 체계의 개발 및 획득, 병참, 가상 모의전투를 통한 군사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해 국방 전 분야에 파급되고 있다.

특히, 공군은 일찍부터 전투기 시뮬레이터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에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앞장서서 도입했었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맞추어 어느 분야보다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능동적이다. 최근에 개발된 미국의 F-22, JSF, 그리고 유럽의 Eurofighter 등 전투기들은 그야말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총집합체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더 나아가서 미국이 개발할 유인전투기는 F-22/JSF가 마지막 세대이며, F-22/JSF 이후의 차세대 전투기는 완전 무인기화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항공기의 설계, 제작, 훈련, 운용, 정비 등의 총체적 관리가 수명주기 내에서 디지털 통합관리(PLM, Product Lifetime Management)되어 그야말로 디지털 월드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며 미래에 대한 대비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의 항공우주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던 1950~60년대에 우리는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빈곤국으로서 항공기 설계 개발은 꿈이었고, 우주비행체 설계개발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생긴 90년대에 들어 초등·고등 훈련기 개발, 비록 소형이지만 인공위성 설계 개발, 그리고 그간의 축적된 로켓기술을 접목한 중·소형 발사체 개발사업을 이어 수행해 오면서 그동안 크게 뒤떨어져 있는 아날로그 설계 개발 기술들을 습득하면서 그 격차를 점점 줄여오고 있다.

이제 2000년대, 기존의 아날로그 설계기술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어떻게 보태느냐가 설계된 비행체의 성능 및 기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기술에서만은 선진국의 기술에 많이 다가와 있다. 특히 광대역 통신망 대량 확보에 따라 세계 최고의 P2P(Peer to Peer) 컴퓨팅 환경은 적절한 소프트웨어만 뒷받침되면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슈퍼컴퓨팅 파워 없이도 초고성능 슈퍼컴퓨팅이 가능하기에 저렴한 슈퍼컴퓨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광대역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PC나 워크스테이션들을 연결하여 고성능의 컴퓨팅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 슈퍼컴퓨팅 기술이나,

기존의 슈퍼컴퓨터들을 초고속으로 연결하여 초슈퍼컴퓨팅을 가능케 하는 그리드(Grid)컴퓨팅 기술 등은 우리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선진국 못지 않은 대규모 설계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하고 있다. 더욱이, 21세기 항공우주 기술개발은 20세기에서처럼 많은 설계 및 제작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된 비행체의 제반 거동을 물리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시뮬레이션(Physics Based Simulation)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상 설계 개발(VDD : Virtual Design and Development)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설계 개발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나라처럼 실제 경험이 일천한 경우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많은 설계 개발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같은 효과를 거두어 선진국과 대등한 항공우주기술을 가질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여자 주인공이 헬리콥터 조종을 짧은 시간의 사이버 트레이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실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항공우주시대에 우리나라가 과거와는 다르게 능동적인 참여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을 보다 빨리 수용하여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미 항공우주기술의 미래를 주도할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저렴한 슈퍼컴퓨팅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VDD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우리나라를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21세기 항공우주 시대에 세계적인 주역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피할 수 없는 선택, 우주전

전투발진단 무기체계실



탈냉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병력의 규모와 군비 등 수적·양적인 측면의 군사적 외형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다차원적 전장영역의 확대에 따른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키 위해 우주전, 미사일전, 로봇전, 정보전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첨단 군사력 확보와 군사기술개발 등 질적인 측면의 군사력 향상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전쟁양상의 변화와 미국의 군사혁신추세를 주목하면서 각기 나름대로 미래전 수행개념 및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오늘날 세계는 군사조직 및 무기체계의 혁명적 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전쟁양상의 변화 등 군사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시대로 일컫는 제1물결시대 전쟁형태는 백병전(白兵戰) 내지는 근접전쟁이었고, 대량생산의 산업시대로 불리는 제2물결시대 전쟁은 대량파괴, 대량살상의 전쟁이었다. 또한 하이테크 및 산업시대로 분류되는 제3물결시대 전쟁은 걸프전과 같은 최첨단 하이테크전으로 상징되고 있다. 또한 지상전과 같은 1차원전쟁으로부터 해상을 포함하는 2차원전쟁, 항공기에 의한 3차원전쟁에서 인공위성 및 우주공간의 전장화에 따른 4차원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전의 역사와 특징은 핵무기의 등장과 항공

기의 지속적인 발달, 다목적 유도무기의 첨단화 및 인공위성의 군사무기화 같은 첨단기술력으로 대변될 수 있으며, 걸프전을 포함한 현대전은 이미 미래 전쟁양상이 고도로 과학화된 정보전쟁과 우주전쟁으로 발전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전 양상은 크게 지상전(War on Land), 해상전(War at Sea)과 같은 기본적인 전쟁형태와 공군의 전력증강 및 임무 활동영역 확장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우주전(Space Warfare),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병행전(Parallel Warfare)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21세기에 세계 각국은 불확실한 미래전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뒷받침을 위해 군사 과학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치중하고 있다. 특히 미래전 추세를 고려할 때 장거리 정밀 타격능력의 증대와 전장 정보획득 능력개선, 그리고 전장을 우주공간으로 확장하는 것 등이 중요한 기술발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우주에 대한 군사적 관심

미 우주사령관 Ralph E. Eberhart 장군은 미 우주관련 군사정보 일간지 『Spacedaily』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주의 중요성과 연계하여 주요 군사작전에서 우주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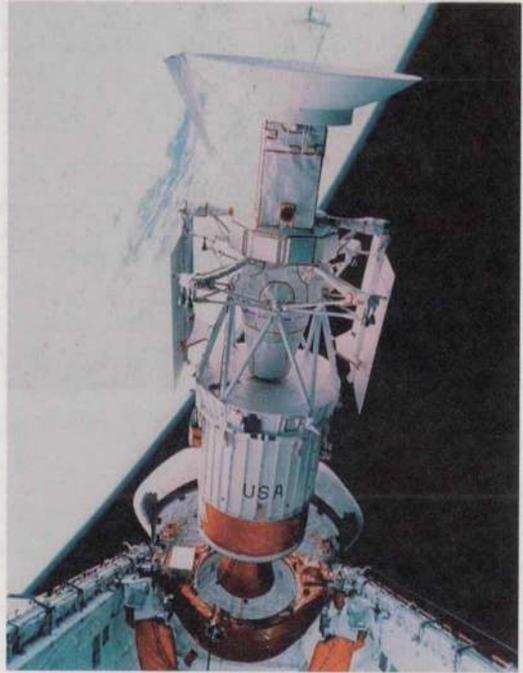
그리고 미 국방부 우주관련 전문가들은 우주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과 우주를 통해 적의 의사결정과정(Decision-Cycle)에 보다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최신 정보수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관리 및 조직발전협의 위원회 발표보고서에서 미래 우주에서의 분쟁은 '사실상 확실(Virtual Certainty)' 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태세 증진을 위한 우주관련 조직 및 능력신장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우주의 군사화는 이미 그 진척 수준이 인공위성 공격무기(ASAT) 개발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우주를 전장화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우주정거장과 유사한 개념인 저궤도상 대형 전투기지 건설 등의 개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주분야 선진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주에 관해 많은 관심과 기술력을 보유한 다수의 국가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주의 군사적 관심과 우주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미래 우주전에 대한 정밀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공상과학 영화인 《스타워즈》가 우주전쟁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레이건이 주장한 우주방위전략구상(SDI)을 놓고 미 의회가 타당성 논쟁을 벌일 때만 해도 우주전의 가능성은 먼 미래의 일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조지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전쟁의 미래』에서 단순한 2차원 및 3차원 공간개념의 무기체계에서 벗어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4차원 공간개념의 신무기체계를 활용한 우주전쟁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항공전력이 최초 정찰임무를 수행한 이후 무장을 장착하여 정찰 및 공격임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제공권 장악 및 지상과 해상을 지배하는 수단이 된 사례와 같이 현재 우주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우주전 양상

우주는 이미 정찰임무 수행을 위한 활용성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버린 지 오래이며, 다음 단계로 우주에서 활동 중인 정찰시스템을 공격하고 방어하려는 전투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를 무대로 한 전장확대는 위성의 실용화와 우주의 군사적 이용과 함께 시작되었고, 개념연구 수준에 머무르던 우주무기체계가 점차적으로 실용화되어 가면서 실질적인 우주전의 바탕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사막의 폭풍작전은 우주정찰 및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한 지상표적의 정밀공격이 이루어진 완벽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현대전은 수천 발의 폭탄과 미사일을 무작위로 투하 및 발사하던 과거의 전쟁양상과는 달리 우주시스템과 연계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공격자가 원하는 시기에 상관없이 정밀공격이 가능한 스마트 무기, 즉 정밀유도미사일(PGM)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GPS 출현으로 전쟁은 본격적인 우주전의 양상을 갖추게 된다. 인공위성을 격추하는 대인



공위성 공격무기(ASAT)가 개발되고, 인공위성은 다시 한번 자체방어와 공격시스템을 갖추게 됨으로써 대기권 밖으로 전장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브루스 스틸링은 정보통신 전문잡지 『Wired』 최신호에서 1991년 걸프전과 1993년 구(舊)유고 코소보사태 때 '제1·2차 우주전쟁'을 치루었고, 9·11테러 이후 '제3차 우주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향후 예상되는 우주전의 양상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위성을 활용하여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s)·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감시(Surveillance)·정찰(Reconnaissance)을 네트워크화한 '통합 C4ISR' 시스템으로 기존의 군사활동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는 5년 내에 대기권 밖 요격 무기인 EKV 5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2007년쯤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항공기가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주전을 수행하기 위해 포, 함정 및 우주항공기 등의 플랫폼, 대기권 재진입 무기, 운동 및 지향성 에너지무기, 표적을 탐지·식별·추적할 수 있는 감지기 및 의사결정용 전장관리/지휘·통제·통신소가 광범위하게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진행될 우주전의 임무영역은 우주지원(Space Support), 전력증강(Force Enhancement),

우주통제(Space Control) 및 전력적용(Force Applic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주지원은 발사작전, 궤도변환, 궤도통제, 우주추적, 군사 및 훈련 등 우주전력에 대한 지원이며 전력증강은 정찰/감시, 조기경보, 항법, 환경감시(기상) 및 통신능력 등을 아군에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우주전 형태이다.

우주통제는 아군의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보존하고 적 우주체계의 능력을 전제, 지연, 와해 또는 파괴하는 것으로 우주통제 및 전력적용이 이루어진다면 본격적인 우주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된 전장으로서의 우주

미래 우주는 통합적인 동시에 독립적인 전장이 될 것이다. 우주전장 내에서 현재 수행되는 우주지원 및 전력증강작전 외에 적의 우주매체 이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적의 우주체계를 파괴하는 우주거부작전, 우주에서 지상표적을 파괴하기 위하여 우주시스템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우주공격작전 및 우군의 우주체계와 지구전력을 방어하기 위하여 공격전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주방호작전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차 우주우세는 군 운용의 기본이며, 전쟁 수행시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항공우세와 마찬가지로 우주우세는 적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원활한 작전수행을 가능하게끔 한다. 비록 지금은 우주우세를 위한 전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 우주우세를 위해 위협국의 우주활동 및 우주시스템을 감시하고 필요시 타격함으로써 다른 우주시스템과의 접전을 예상할 수 있다.

다양한 우주시스템을 공격함으로써 적 우주체계 또는 정보수집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세적 우주작전은 우주 및 지상전력에 의해서 동시에 수행될 것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우주시스템의 보호는 우주작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슈리버 공군기지에서 최근 비밀리에 실시한 미국과 중국간 가상 우주전투에서 '우주는 가장 높은 고지'라며 전투에서 고지 점령은 필수인 만큼 우주는 획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임이 강조되었다.

미 우주사령관 Eberhart 장군은 군사적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우주가 시작되는 고도를 100mile(약 161km)로 지정하고, 작전가능한 우주 공간은 지표면으로부터 고도 50mile(약 80km)부터 시작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우주영역에서 행동의 자유를 어느 누구가 먼저 선취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를 주도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되어지는 것이다.

우주공간의 선제권 획득을 위해 우주공간의 통제, 그리고 특히 우주의 전략적 영역을 통제하는 것이 향후 군사작전의 기본이 될 것이며, 최초 단계에는 우주공간의 통제를 위해 위성을 띄우는 것만으로 달성될 것이다. 궤도에 발사된 위성은 단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통제력을 발휘하며 어느 것도 그것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첨단 과학기술력의 실전적 배치로 우주배치 레이저 무기, 우주요격기, 우주유도탄, 레일건 등과 같은 우주활동 무기체계가 형상화되게 되면 정찰위성들은 이러한 우주무기체계로부터 우주-지상간 통신 차단 및 정찰임무 저지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주 공간에 위성, 탑재체 및 기타 물체를 운반하는 우주수송 작전이 요구될 것이며, 우주비행체를 운용, 통합, 조합, 검사 및 발사하기 위하여 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우주관련 요원간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위성작전 수행에 필요한 위성통제망은 위성의 기동, 지원 및 운용을 지속하기 위해 단일 및 다중체계화될 것이다. 그리고 임무자료를 전역지휘관 및 작전수행 요원에게 실시간 송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투임무수행과 의사결정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기능 및 임무를 수행 중인 인공위성이 현재 궤도에서 활동 중이므로 이들 위성을 전시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단 군사위성에 대한 통제 이외에 민간 및 상용위성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시간과 임무에 맞게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성의 발사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감시와 통제를 담당하게 될 인공위성 종합통제소의 구축이 이루어져 현 항공전력 통제개념과 유사한 형태로 우주전력의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주전투측면에서는 우주에 배치 운용되어질 무기체계에 의해 지상 및 우주목표물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우주배치 레이저와 같은 우주무기체계는 지상의 목표물에 대해 우주로부터의 공격을 제공할 수 있고, 아군 항공자산의 효과적인 침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 방공망을 적시에 파괴할 수 있다.

지금까지 향후 예상되는 우주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우주전에 대한 견해는 불확실한 미래전장환경에서 중요한 작전분야의 하나로 대두될 것이다. 걸프전, 유고전, 코소보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보았듯이 현대전이 고도로 정보화, 과학화됨에 따라 첨단과학 무기체계와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우주전에 대비한 확고한 준비를 통하여 미래전에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래 우주전과 공군의 대비

전투발진단 무기체계실

『국방백서』에 의하면, 우리군은 국방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정비하고 미래 안보환경하에서 자주적 국방능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하나의 중·장기적 국방정책기조로 설정하고 '방위태세의 자주화', '국방인력의 정예화', '무기체계의 과학화', '운영체계의 합리화', '국방의 정보화'를 실천지표로 삼아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요 군사선진국들은 미래 우주전 수행가능성과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이미 본격적으로 우주전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우주전 관심 증대

미국 : 미국은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정보력 우위를 바탕으로 위성을 활용한 광역·다기능 감시 및 정찰수단과 GPS를 이용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범세계적 지휘통제망을 이용한 전장관리 및 통제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우주전에 대비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우주력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 주도하에 민간 우주관련기술 및 우주자산을 통합하여 유사시 우주를 통한 전쟁수행능력 극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우주전략방어계획의 전면적 강화·재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주전략 분야의 조직과 관리를 통합해 공

군 우주사령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이미 우주작전 부대와 우주전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주전에 대비하기 위해 제76우주통제대대와 제527우주공격대대를 창설하여 우주에서의 공격 및 방어용 무기체계 시험과 우주전 연습에서 적군의 역할을 가상으로 수행하면서 취약점 도출 및 보완에 매진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은 현재 장차 육·해·공군 외에 '우주군'을 별도 편제로 갖게 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 러시아는 미국과 거의 대등한 군사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주기술의 50%는 세계 최첨단수준이며 레이저 기술, 플라스마 무기, 제3세대 핵무기 기술 등은 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1992년에 '신 군사독트린'을 채택하고 '우주지배'의 중요성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우주군 사령관 '페르미노프' 상장은 우주군 창설과 관련한 우주군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위성시스템 보강 및 현대화, 국내 우주발사기지 확충, 지상 통제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우주군 창설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거 총참모부 직속의 독립병과로 우주군을 창설하여 군조직 정비, 우주로켓 발사, 위

성통제, 우주방어태세 완비 등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관련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로서 다양한 우주발사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인우주선 발사 및 우주정거장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인 우주선 발사는 군사용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및 인공위성 관측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중국 우주백서』를 통하여 21세기를 세계의 우주활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신세기로 규정하고 국가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장구한 목표에 의거해 21세기를 지향하는 우주발전전략과 계획을 작성하여 우주전에 대비한 기반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 일본은 과거부터 우주개발이 가지고 있는 국제성을 착안하여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 어울리는 역할을 다하도록 우주관련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 방송, 기상 등 실용분야의 우주개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산 H2A 로켓개발 등의 사례로 볼 때 필요시 우주관련 기술 및 연구성과를 유사시 신속하게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같이 주요 선진국이 미국을 선두로 우주력 확보에 노력하는 이유는 21세기 첨단기술시대의 새로운 군대는 과거 재래식 군대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우주개발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유인 우주선 개발과 전문 우주비행사 양성 등 우주 산업분야 육성 위주로 우주연구 및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미래전의 핵심전장환경으로 급부상하게 될 우주에 대한 활용과 관련 무기체계 획득 등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하여 공군이 대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우주전을 준비하는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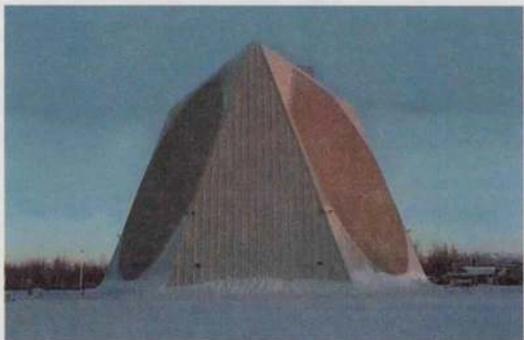
우리 공군은 현재까지 영공방위라는 전술적 개념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전 양상과 미래전 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고전적 사고의 틀이 장차 요구되는 새로운 개념의 우주작전이나 우주무기라는 신개념의 도입에 커다란 난제가 될 것임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우주라고 하면 막연히 먼 미래의 상상 정도로 치부해버리고마는 진부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공군은 과학군·정보군의 핵심전력이 돼야 한다'면서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을 실현해 나가는 데 각별히 유념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우리 공군이 우주의 전장화에 대비하는 우주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군의 고전적 전술 및 전장개념을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우주에 대한 군사적 활용과 우주전 수행에 필요한 전략/전술교리 등 군사적 측면의 우주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년 전부터 '항공우주군'라는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선언적이고 슬로건적 의미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기반체계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능력을 신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활동무대이자 핵심전장이 될 우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미래전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미래 우주전에 대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준비해야 될 과제는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주변국 우주공간에 활동 중인 인공위성과 새롭게 발사되는 위성/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탐지/추적하는 우주감시체계 구축이 반듯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주를 통한 작전수행 능력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군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체계가 바로 감시자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적의 활동현황 감시 및 탐지, 적의 위협물체를 추적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원활한 작전수행의 기초단계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감시체계는 현재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광역의 국가급 조기경보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인공위성에 대한 통제 및 관리와 국가방위 차원의 우주 전장관리는 물론 국가 우주자산 보호 및 각종 인공위성 발사지원/운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공위성 종합 통

제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종 위성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인공위성 종합 통제체계는 국가 위기시 또는 전시에 국가 우주자산의 보호는 물론 통합적인 위성 관리 및 통제(필요시 기능 중단 및 동원 등)가 가능하여 특히 전시에 민간 및 상업용 위성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통제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군주도하에 구축되어 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군은 타군에 비해 모든 정보의 수신이 실시간 이루어져야 하는 임무특성상 최선의 적 정보를 얼마나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는냐에 따라 임무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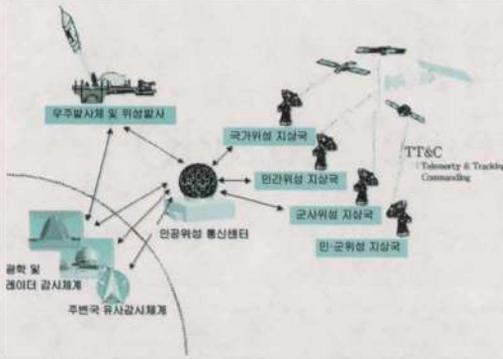
그러므로 현재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독자적 정보수집 및 광역의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다목적 위성을 활용한 위성정찰체계와 연동, 위성영상 수신자료 활용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공군의 주요핵심임무인 전략표적 공격정보로 활용하며 임무항공기에 실시간 표적정보를 지원함으로써 전투능력 극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작전에 있어 정확한 기상정보의 적시제공은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장차 공군의 주요 활동무대가 될 우주에서의 원활한 작전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우주에 대한 기상예보 또한 반듯이 필요한 요소라 판단된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기권내 기상예보 수준을 넘어서 향후에는 국가 다목적 위성 4호를 활용한 기상자료 수신체계 및 우주기상예보를 위한 우주기상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우주전 수행에 대비한 우주기상 예보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전능력의 신장과 미래 공군이 운영하게 될 최첨단 무기체계간의 유기적인 연동을 위해서 민·군 공용위성을 이용한 군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고속대용량의 군전용 위성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정보통신망과 연계





한 공군 위성통신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서 우주전 양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래 우주전은 우주 및 지상에 배치된 공격무기체계를 활용하여 적 우주전력의 무력화를 위한 우주전투가 예상된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공군에서는 선진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주무기 체계에 대한 개념연구와 군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레일건(Rail Gun), 우주유도탄과 같은 운동성 에너지 무기와 레이저 무기(GBL/ABL/SBL), 고출력 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단계적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21세기 항공우주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주작전 전담부대의 창설이 요구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주관련 선진국들은 장차 우주전에 대비해 우주관련 작전임무를 담당할 우주군의 창설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공군도 우주작전을 수행할 기반체계인 우주감시체계 구축과 동시에 우주분야 기반구축을 위한 단위부대를 창설하고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우주작전수행을 위해 '우주전대' 및 '우주단'으로 단계적인 확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우주의 전략적 중요성과 우주작전능력 신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항공우주군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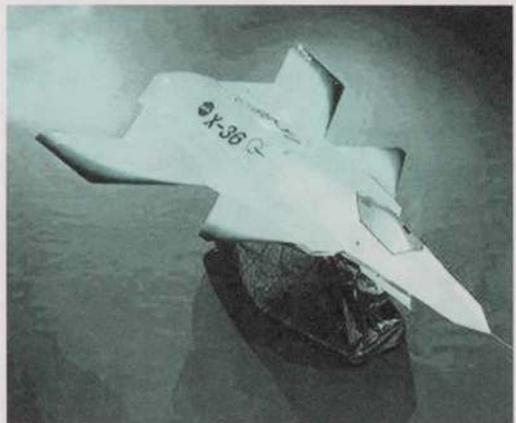
지금까지 미래전에 예상되는 다양한 작전형태 중 우주전을 대상으로 전쟁양상 및 우리군이 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가안보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군이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전력을 증가해야 함은 가장 기본적인 행위일 것이다.

속담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라는 말이 있다. 진정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우주전에 대비한 일련의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우주의 군사적 활용 및 우주를 통한 군사작전의 수행은 더이상 상상의 나라로 치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전은 전쟁수행방식의 변화 및 전투공간이 우주로 확대되어 우주를 통한 군사작전이 필수적이며, 한반도 주변국들이 앞다투어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서두르고 있어 우주를 통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공중, 우주, 그리고 정보영역을 이용한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서, 항공우주군 건설 및 전략형 공군 건설을 통해 우주작전 기반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미 공군 교리(1)

전략공격(Strategic Attack)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공군으로서는 항공우주력에 관해서 선두주자인 미국의 공군 교리를 알고 이해한다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호에서는 미 공군 교리 중 첫번째로 전략공격 교리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략공격
2. 우주 작전
3. 제지(counter land) 작전
4. 정보 작전

전략공격에 대한 기초적 이해

전략공격은 항공우주력의 사활적 기능 중의 하나이며, 공군중심 합동전력의 기본적인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항공우주력은 본질적으로 전략적인 군이며 공세적 무기로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다. 항공우주력은 값비싸고 순차적이며 대칭적 성격인 소모전을 회피하면서, 적의 중심 및 결정적인 취약성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결정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공격은 적에게 침공시 높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억제력을 달성하며 보복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전략공격은 적의 전략적, 작전적 중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군사행위이며, 그 범위로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비밀스런 특수작전군, 정보전 역량들도 포함한다. 그리고 최선의 운용방법은 신속하고 결정적인 공세적 작전 및 효과에 기반한 운용이며, 이것은 전쟁수행의 주도권을 지배할 수 있게 한다.

지휘관들은 이를 위해 적의 중심 및 취약성 분석이 필요하다. 전쟁수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효과는 중심의 파괴나 와해이기 때문이다. 중심은 분쟁의 형태에 따라 다수의 중심이 존재할 수 있으며, 상호 의존적이므로 하나의 중심에 대한 파괴나 와해는 다른 힘이나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국가지휘기구 및 적의 목표, 사기의 중심, 문화, 전투서열 정보 등에 관해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전략공격은 제공(制空), 제우주(制宇宙), 제지(制地), 제해(制海), 그리고 제정보(制情報)와 같은 다른 작전들의 시너지 효과에도 기여하며, 그것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누적적 효과와 폭포효과도 발생한다. 누적적 효과는 적에 대한 많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들을 집계한 결과이며, 전쟁의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폭포효과는 전쟁의 보다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적의 중심 통신시설 파괴가 전구의 전 영역



에서 적의 지휘통신을 마비시키는 효과이다.

지휘관들은 전략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 부수효과 외에도 잠재적인 부수적 효과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특정한 표적에 대한 전략공격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효과적인 전략공격작전의 요소

전략공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항공우주우세로 이는 전략공격과 상호지원적인 관계이며, 어떤 군사작전보다 우선시되고 있고, 모든 우군의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다. 지휘관들은 전략공격의 성공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전 지원을 포함하는 제공, 제우주, 그리고 제정보작전 등을 적절하게 기획하여 항공우주우세를 달성하여야 한다. 항공우주우세가 없이 전략공격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생존성과 임무성공에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작전적 평가와 정보, 감시, 정찰지원이다. 작전적 평가는 전략공격작전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기여하며, 정보·감시·정찰은 표적을 선택하는

핵심이 된다. 셋째로 지속성이다. 지속성은 전략공격의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지휘관들은 전 전략항공전역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전략공격을 지속하여야 한다. 전략공격 자산은 생존에 사활적이지 않다면 다른 임무로 전환되어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공우주군만이 전략공격작전을 지속하는데 적절하다. 지·해상군들은 대개 지속적인 압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지역을 점령하여야 하고 적과 지속적으로 근접하여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신속 정확한 전투지원이 있어야 하며, 집권적 통제 및 분권적 임무수행이 필요하고, 심리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략공격은 어떠한 작전보다 적에 대해 사기저하의 심리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휘와 통제

항공우주군의 집권적 통제와 분권적 수행은 효과적인 전략공격작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집권적 통제는 항공작전 기획과 집행에서 항공우주자산들의 통합을 강조함으로써 항공우주력



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분권적 수행은 어떤 단일 지휘관도 가용한 모든 항공우주력에 대한 상세한 행위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제한된 자산들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하고, 전술적인 적용을 허락하며, 하나의 합동된 환경에서 개념들과 절차들을 상이하게 운용하는 군종들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전략공격은 어떤 우발사태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작전이 될 수 있으므로 공군부대들은 합동이나 다국적 작전에도 운용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장비되고, 기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공격의 합동작전적인 추세가 단일 군종에 의한 전략공격작전 수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단일 군종에 의한 직접공격으로 전략적 목표들을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방위지시 5100.1 『국방성의 기능들과 그의 주요 구성군』에서는 “공군은 전략적 항공과 미사일 전쟁을 위하여 조직하고 훈련하며, 장비하고 군을 제공한다”라고 특별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진보로 인하여 모든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속히 제공한다. 3군 중에서 공군은 전략공격에 필수적인 항공우주력을 제공한다. 이 항공우주력의 효율적 사용은 전쟁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합동군 사령관은 합동군 공군구성군사령관이나 연합군 공군구성군사령관을 선정한다. 그리고 그 합동군 공군구성군사령관은 항공우주작전을 계획하고 과업을 부과하며 통제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자산과 역량에서 우세함을 갖는 구성군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바로 그 지휘관이 전략공격작전을 위한 사령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선임된 사령관은 전략공격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주자산이나 기동자산과 같은 범세계적인 지원기능부대들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기획과 운용

지휘관들은 전략공격작전의 기획과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제약들의 범위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정치적, 외교적 상황을 감시하며, 현재의 정치적, 외교적 상황에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전구의 전역계획과 연계된 구체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효과에 기반한 항공우주작전을 발전시켜야 하며 기획시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최소한의 국지적인 항공우세는 전략공격이 수행되기 이전에 달성되어야만 한다. 둘째, 지휘관들은 중심을 공격하는 이득과 전략공격자산들의 손실가능성의 비교를 위하여 위험을 분석해야 한다. 셋째, 전략공격작전은 비대칭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병행공격개념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중심들과 결정적인 취약성들에 대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넷째, 지휘관들은 적이 전략공격의 효과를 파악하고 저항할 결의의 포기를 심사숙고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간격을 예상하여야 한다. 다섯째, 전략공격은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다른 작전과 다르며, 각각의 타군들로부터 제공된 다수의 자산들과 함께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C-400(REIMS F406 Caravan II)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C-400은 프랑스 REIMS사의 Twin turboprop 항공기이다. 1982년 중반 개발계획 수립, 1983년 9월 22일 첫 비행, 1984년 12월 21일 프랑스에서 비행 인증을 받았으며 FAA의 인정을 받은 후 1985년 4월 20일 F406의 첫 항공기가 생산되었다.

주요항전장비로는 기상레이더, 자동조종장치, 전자비행정보장비, 비행관리장비 등을 장착하여 비행 중 조종사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기하였고, 전천후 비행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의 Beechcraft사의 C-12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 및 화물수송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였으나, 기내 여압이 되지 않는 등 C-12에 비해서 약 60%(엔진추력 기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C-400의 초기 제작모델인 F406 Caravan II는 인원수송, 화물기, 환자수송, 고공공중투하, 관측, 훈련, 항법장비측정, 표적견인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2000년 10월 성능이 향상된 F406 NG(New Generation)가 개발되었고, 해양순찰 및 정찰을 목적으로 6종류(Vigilant, Vigilant Frontier, Vigilant Polmar II, Vigilant Polmar III, Vigilant Surmar, Vigilant Comint/Imint)로 개조되었다. 현재 한국 공군 및 해군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4)

▶ 제원 및 성능

- 기장/기고/기폭 : 13.2ft(4.01m)/
39ft(11.89m)/49.5ft(15.08m)
- 엔진 및 추력 : Pratt & whitney canada
PT6A-112 turboprops(500SHP)
- 최대이륙중량 : 9,850lbs(4,468kg)
- 최대순항속도 : 4,892lbs(2,219kg)
- 최대항속거리 : 1,153NM

공군종군문인단사(2)

- 공군 종군작가들의 전쟁소설 -

공군사관학교 중령 신영덕

물
은
물
대
로

方
基
煥



密 • 趙 炳 憲

이노 小説家가 만하기문(내 作中人物은 내 머
리 속에 臨在해서 이류의 불기 무성계 제외대
저외물의 生活을 시작한다. 그들은 내게 저외
물의 計劃을 強要하고 行爲를 強要한다.)
(표훈 • 바메덕)

김동리는 한국전쟁기를 '종군문단기'로 규정하
바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나름대로 충분한 의의
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시기 많은 문인들
이 종군작가로서 활동을 하였고, 또 애국심과 전
의를 고취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강한 작품들
을 많이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기의 작
품들이 한국문학사에서 외면되어 왔던 것은 이
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인
비는 전쟁이 문명의 쇠퇴를 가져왔음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한국전쟁기의 작품들이 미학적으로
미숙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전쟁을 겪은 대부분

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우리의 사정과 매우 유
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시작된 일본 당국의 문화간섭과 탄압정책
은 1940년 전쟁 개시 전후부터 매우 극심해졌으
며, 이때부터 일본 문단에는 '전쟁문학'과 '국책
문학'이 범람하기 시작하였고, 당시에 이루어진
육·해군 종군작가부대의 결성과 작가들의 종군
활동은 작가들의 비판정신을 크게 후퇴시켜, 무
반성적인 정치와 문학의 결합을 가져왔던 것으
로 오늘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전쟁기 문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품 자체만의 미학적 완성 여부뿐만 아니
라 그 현상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구명이 필요하
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전쟁기 소설에 대한
기존의 평가 중에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
이 이루어진 것이 적지 않다. 한국전쟁기 종군작
가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발표하였던
바, 종군작가라고 해서 그들의 작품을 일률적으
로 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
검토를 생략한 채 이들 모두를 부정적으로 처리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종군작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은 이러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공군 종군작가들의 전
쟁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 및 의의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최인욱의 『박군 이야기』(『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화자인 '나'의 사촌 처남 되는 박인수에 관한 이야기이다. 박군은 대구서에 순경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순경도 총 들고 실전에 나서게 된 판'이라 순경직을 그만둔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나'를 찾아와 '경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제2국민병 소집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경찰계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청을 정중히 거절한다. 그러나 아내는 '권력과 돈이면 그만인' 세상에서 혼자 청백하면 누가 알아주는가 하며 부탁을 들어주라고 한다. 이에 '나'는



밤의 무게

박두진

밤이 작고 가라앉는다. 안개처럼 자욱하게 가라앉는 밤。 | 가라앉는 밤에 안겨 마물들이 잠긴다. 꽃잎들이 잠긴다. 떠나가는 구운 것, 나비。 나비。 나비。 ……

原罪以後

具常

있으면서도 여기에 떨어 놓지 않는다
은 不眞實한 所爲가 아니겠음니까?
內審의 抗辯이 있었다。

緣故로 S氏의 業蹟과 長點만을 披
頌하지 그에게 向한 不滿과 缺點은
숨겨져 披擻치 않습니다。 뒤에 들
는 S氏에 對한 區區한 不平은 가

분노를 참으며 다음과 같은 제자 K의 편지를 떠올린다.

선생님, 우리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죽어도 나라가 바로 선다면 이 얼마나 영광일까요. [중략] 죽음으로 조국 강토를 찾을 지언정 살아서 비겁한 짓은 하지 말자고 우리는 굳게 맹세했습니다.(『전시문학독본』, p.120.)

박군은 결국 실망해서 돌아가고 마는데, 이러한 결말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비판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목적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적의식은 공군 중군문인단 사무국장이었던 그의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방기환의 『골육(骨肉)』(『코메트』 4, 1953. 5.)은 조종사의 이야기를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전의를 고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백중위는 '무섭게 얹이까지 강하하기로 유명한 파이롯트'로서 따발총을 휘두르는 적을 공격한다. 그런데 그 속에 자신의 아우 광이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멈춘다. 그로 인해 발사한 로켓은 빗나가게 된다. 그는 어젯밤 꿈을 생각한다. 이북 고향 땅에 남아 있

는 아우 '광이 놈'이 '적병들' 측에 끼어 따발총을 휘두르며 백중위와 전우를 겨누던 꿈이었다. 이어서 광이의 잔인하고 냉혹한 눈초리가 눈에 뜨이자, 백중위는 '비록 형제지간일지라도 전우를 향해 따발총을 겨누는 아우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아우가 있는 곳에 폭격을 한다. 그런데 폭탄이 목표물에 명중되자 백중위는 미소와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이 작품의 결말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공군 조종사를 다룬 많지 않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이데올로기의 선택과 성품의 차이를 동일시하는 등 지극히 관념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정희의 『임하사와 그 어머니』(『협동』 37, 1952. 12.)는 육군 임영하 하사가 작년 시월 어머니, 할머니 몰래 입대한 후 처음으로 집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임영하가 세살 때,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다. 할머니, 어머니는 임영하가 커 가는 재미에 세상을 사는 보람을 찾는다. 그런데 6·25가 발발하자 그는 인민군을 피해 구들장 밑에 숨어 지낸다. '적군'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국군 소집영장이 나온다. 할머니, 어머니는 다시 숨으라고 한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

질 육이오 때 숨겨두신 목적이 어딴어요?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게 하려구 숨겨두셨어요? 내 나라 내 민족이 위기에 있는데 그래 남아루 나서 비슬비슬 숨어 살란 말이에요? 내 나라 내 민족이 다 망한 후에 살면 뭘해요. 그렇게 살아선 값이 없어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싸우다 죽는 건 비슬비슬 값없이 사는 것 몇 배 이상이에요.(『협동』 37, 1952. 12. p.136.)

할머니,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눈물을 흘리며 만류한다. 그러자 임하사는 몰래 입대하였다가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젊

은이들의 전선지원을 독려하고 있는 이 작품의 이러한 내용은 적 치하 서울에서 겪었던 최정희 자신의 경험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난중일기에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그녀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다음과 같이 맹세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 나는 이때까지 - 그(군인이 되어 돌아온 익조 - 인용자)를 만나지 않은 이때까지 - 민족은 사랑했어도 국가는 사랑해 보지 못한 것 같다. 이제 나는 익조와 함께 익조가 피흘려 받치는 국가를 위해 나도 받치기를 맹세한다(『적화삼삭구인집(敵禍三朔九人集)』, 국제보도연맹, 1951, p.52.).

이외에도 종군작가들의 전쟁독려소설은 주로 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 및 공산주의 사회의 모순 폭로, 북한의 김일성 및 소련의 스탈린에 대한 비판, 공산주의자 및 부역자들의 부정적인 모습 부각, 전의 고취, 애국적 인물의 형상화, 용감한 국군상의 형상화, 일선 지원 독려, 후방 사회의 타락상 비판, 이기적 인간 비판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쟁을 독려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작품 표면에 드러내고 있다. 계몽적 성격이 강한 작품에 해당한다고 하겠는데, 이는 종군작가로서의 임무 혹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 작품들이 다소 작의적이고도 관념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자 이 같은 경향의 작품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목적의 한시성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중에는 당대 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전쟁기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작품도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

하늘의 119,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제6탐색구조전대 중위 권 시 현



6전대는 전시대비 조종사 구조임무, 격오지 및 도서지방 긴급환자 수송, 수해 및 화재시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수행에 전 부대원이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 해온 결과 한국 공군의 최정예 탐색구조 전문부대로 우뚝 서게 되었다.

국내 유일의 탐색구조 전문부대로 '필구인명(必求人命)'을 모토로 국가적 재난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늘의 119'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이하 6전대)는 1958년 제10전투비행단 예하 제33구조비행대대를 모태로 창설되었다.

그 후 신기종 항공기 도입, 항공구조대 창설 등의 발전을 거듭한 6전대는 전시대비 조종사 구조임무, 격오지 및 도서지방 긴급환자 수송, 수해 및 화재시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수행에 전 부대원이 합심·단결하여 최선을 다 해왔다. 그 결과 창설 10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공군의 최정예 탐색구조 전문부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전천후 특수요원 '레드 베레'

공군의 대표적 특수부대인 6전대는 일반적으로 각 군의 특수부대가 유사시 적을 제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귀중한 인명을 구하기 위

해 존재한다. 전시 적 지역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출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6전대에는 일명 '레드 베레'로 불리우는 항공구조사들이 존재한다. "내 목숨을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기본 정신으로 무장한 항공구조대는 전원이 하사 이상의 간부로 편성되어 있다.

한 사람의 완벽한 항공구조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종 치료법, 비행훈련, 낙하산 강하훈련, 잠수(SCUBA)훈련, 산악구조, 생활훈련 등의 기본양성교육을 마쳐야 될 뿐만 아니라, 기본교육 후에도 최소 2년 정도의 반복 숙달훈련을 거쳐야 실전투입이 가능하며, 5년 정도의 실전경험을 쌓은 후에야 단독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듯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마침내 육·해·공 어떤 작전에도 투입이 가능한 전천후 특수요원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6전대는 제주도에서 독도까지 우리나라의



FIR(비행정보구역)을 총 망라하는 지역에서 탐색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조종사·정비사·구조사로 구성된 비상대기조를 전국 3개 지점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전시임무 외에 6전대는 조난항공기 조종사 구조, 각종 육·해상 사고 인명구조, 긴급환자 공수, 수해구조, 산불진화 등의 평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듯 완벽한 임무수행 또한 비상대기조의 24시간 대기 및 긴급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1993년 아시아나 민항기 추락사고 구조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6전대는 1998년에는 재해 대책 추진 및 방재 종합 시범훈련 공로로 행정자

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 강릉·삼척·울진·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진화 등 뛰어난 임무 수행으로 건군 52주년 국군의 날 참모총장 부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58년 부대창설 이후 40여 년 동안 4,300여 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등 각종 공수·구조임무와 대민지원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오고 있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탐색구조 전문부대로서 공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디에고 가르시아의 하늘(2)

57공군수송지원단 소령 전 완 영

디에고 가르시아의 스콜 교향곡

디에고 가르시아 도착 직후 기내에서 나오자마자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하여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 시간으로 한낮에 도착해서 더욱 그러했지만 실외 대기온도는 31°C, 습도는 80%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착한 날 저녁과 다음 날 새벽에는 뇌우를 동반한 열대 스콜 현상이 - 떠나는 날 새벽, 비행 준비를 하는 시간까지 모두 6차례 - 있었다.

처음 접하는 열대 스콜은 가히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숙소인 텐트에서 듣는 빗소리는 마치 작은북을 치는 트레몰로와 같았고 천둥소리는 박자를 맞추는 큰북으로, 그리고 강한 거스트풍은 피콜로와 수자폰의 고저음으로 텐트를 건드렸다. 새벽 잠결에 듣는 열대 스콜의 교향곡이던가? 가히 우리나라 한여름의 강한 소낙비의 강도와 흡사 같았다. 고국을 떠나왔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감상적 순간도 잠깐이었다.

현실로 돌아와 직업의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우리가 그 먼 인도양을 건너면서 예기치 못한 열대 스콜을 조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내 머리끝이 쭈뼛 쭈뼛! 새벽잠을 설치며 아침 기상시간까지 내내 마음은 불안하였지만 반면 더욱 정확한 기상예보의 중요함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제복을 입은 나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고, 그럴수록 더욱 스스로를 만족스런 존재로 느끼는 실로 묘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까지 마음속에서 일어남을 경험하였다.

나뿐 아니라 우리 텐트의 승무원들도 주기되어

있는 항공기와 귀환항로의 기상상태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진정 이국의 전선에서 느끼는 애국심과 군인의 사명감을 깊게 느꼈을 것이다.

항로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

열대지방의 기후는 많은 일사량, 높은 온도, 소나기성 강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12월부터 2월 사이는 강수가 있는 계절(여름몬순)이다. 이 기간 중에는 가끔 강한 서-북서풍과 고온, 많은 강수량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3월부터 5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 사이는 여름과 겨울의 날씨 특성이 모두 반영되는 과도기적 특징을 가진다.

인도양 해양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이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12월에서 3월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다. 열대성 저기압은 디에고 가르시아의 동·남동쪽에서 발생해서 남서쪽으로 이동한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적도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근으로 지나가는 폭풍들은 대체로 발달기에 있는 상태이다. 이들이 디에고 가르시아를 지날 때 중·강 정도의 강수를 보이고 서 내지 북서의 거스트풍이 불게된다. 일반적으로 매년 남 인도양에서 열대성 폭풍(34~63KT) 정도의 강도를 지닌 열대성 저기압이 11개 정도 발생하고, 또한 평균 4개 정도의 열대성 저기압은 태풍의 강도인 64KT 이상의 사이클론으로 발달한다.

현재까지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 임무기지 기상대의 관측자료와 위성사진, 그리고 악기상 분석도를 비교하였을 때 적도부근 인도양 상공의 항로에는 두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항상 두터운 구

름과 함께 곳곳에 소나기성 강우, 뇌우, 요란 등의 악기상 현상이 있었으며, 또한 비행구간 구름의 ON TOP은 열대지방의 높은 온도와 낮은 공기밀도로 인하여 항상 45,000ft~50,000ft의 수준을 보였다.

신속·정확한 기상지원, 임무완수의 밑거름

지구 대기의 구조와 일반적인 대기 대순환이론에 근거한 적도부근의 디에고가르시아 항로는 다분히 물리적 변화량이 극심한 열대 수렴대(ITCZ : 남북위 20° 이내,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에 속한다.

미 해군 디에고가르시아 기상대의 약 30년간의 기후통계에 따르면 연 강수 일수는 거의 매일 비가 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 296일이다. 3월부터는 건기로 넘어가는 달이다. 하지만 3월 이후 건기인 디에고가르시아 기상요소들을 강수가 집중되고 악기상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하계기간과 상대적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항로상에는 우리나라 여름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빈번한 스콜, 뇌우, 난류 등의 악기상 현상이 연중 예상되며, 두터운 구름과 높은 ON TOP 형

성으로 장시간 운중 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항상 철저한 비행계획 파악과 임무구간 기상상황 감시를 통한 즉응지원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완벽한 기상지원을 통해 우리를 맞이하는 디에고가르시아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 것이다. ☁





사이버 공간에서 푸른 하늘로

지난 5월, 공군사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2회 공군참모총장배 컴퓨터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입상자들에게 사이버 공간을 떠나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한국과 폴란드의 월드컵 경기를 앞둔 지난 6월 4일, 중학교 3학년생부터 대학생, 직장인, 공군에서 20여년 정비를 해 온 현역 정비사 등, 실제 비행을 앞둔 긴장감으로 상기된 얼굴을 한 '그들'이 비행기지로 들어섰다. 비행시뮬레이션대회장, 항공생리교육, 그리고 꿈에 그리던 항공기조종 순간까지의 장면들을 차례대로 묶어 보았다.





- 1 F-16 2 대 2 부문 준결승. 아앗 어떻게 저런 비행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매가 날카롭다.
- 2 함께 열린 항공상식 퀴즈대회. '틀리신 분은 비행기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3 가속도내성훈련. 나 떨고 있나?
- 4 으아아아악!
- 5 비행브리핑. 이륙, 비행, 착륙, 끝.
- 6 또 떨고 있나?
- 7 착륙, 나의 애기(愛機) T-41

꿈은 여전히 그의 손에 남아 있었다

212대대 비행교관 대위 조 일 권



어느새 비행기는 주어진 공역에 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아직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학생에게 조종간을 건넸다. 순간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나이 어린 학생으로만 여겼는데, 그는 내가 지시하는 비행자세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수평비행자세, 좌·우 선회자세 등 정확한 비행자세 유지에 조금의 어색함이나 어설피름은 없었다. 적어도 훈련과정 중간에 와있는

나의 직함은 제2회 공군참모총장배 컴퓨터 비행시뮬레이션대회 'T-41 장주비행 부문 심판'이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의 연령층은 예상 밖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 T-41 관속비행을 위해 대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어색해 보이는 비행복을 입고 있었다. 한 입상자는 맞는 비행복이 없을 정도로 덩치가 거대했고, 어떤 입상자는 본인 스스로 비행복을 구입해 입을 정도로 열의가 대단했다. 가장 어린 입상자는 중학교 3학년생으로 세 명이나 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이나와 관속비행을 함께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 학생은 키가 179cm나 되고 발 크기도 300mm에 가까워, 비행기에 안들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다.

조종학생의 기량은 충분히 되고도 남았다.

나는 이 학생에게 부분적이거나 장주비행을 시켜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또 한번의 경이로움이 느껴졌다. 컴퓨터로는 수백 번도 더 연습했다지만, 오버헤드 패턴을 그리며, 고도, 속도 유지는 물론 당김(FLARE) 역시 내가 조연하는데로 능란하게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더 푸른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를 조종하고픈 어린 학생의 욕망을 뒤로한 채 다시금 조종간은 본격적인 착륙을 위해 내 손에 와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조종사가 되겠다는 어린 학생의 소망만은 여전히 조종간에 남아 있었다. ⚡



제11전투비행단 조종사 생환훈련(1974)

여기는 수영장이다.
아니,
여기는 바다다.
삼킬 듯한 파도가 덮쳐오는
심연의 아가리다.

나를 잡아 당기는
질긴 끈만이
젖어오는 심연의 차가움으로부터
나를 길어올릴 것이다.

사이다 한 병이 어울리는
비치파라솔이
얼핏 보인다.

그래, 여기는 수영장이 분명하다.
반라(半裸)의 나는
다이빙 보드에 서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이빙하기에는
너무 높다.

여긴 바다다.



한국의 춘화(春畵)

대전매일 문화부 기자 권도연

‘계곡은 먹으로 흥건하고 입구에는 분홍의 진 달래 꽃잎이 자지러지게 피어 있다. 그리고 멀찌 감치 한 쌍의 남녀가 보인다.’ 이쯤되면 이미 알 만하다. 요즘이라면 포르노그래피라 읽히겠지만 조선시대에도 포르노에 버금가는 예술작품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춘화(春畵)’다.

남녀간의 성행위를 직접 묘사한 한국의 춘화는 ‘주술’이나 ‘자위행위’ 등의 실용적 용도로 사용됐다. 제목부터 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운우도침(雲雨圖帖), 원앙비보(鴛鴦秘譜) 등의 분위기 있는 이름으로 불리며, 조선 후기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조선시대 풍속화의 대가들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 관능미를 제대로 표현하는 데는 혜원 신윤복과 단원 김홍도를 따를 자가 없다. 혜원의 경우 배경을 음양의 형태로 그윽하게 처리함으로써 남녀의 성희 자체를 대자연의 일부로 승화시키는가 하면, 단원은 야외에서의 섹스 장면을 묘사하면서 현장의 바위와 땅까지 ‘결합’의 모습이 되도록 배치할 정도였다. 조선의 춘화는 이처럼 남녀의 성적결합과 자연의 음양일치를 동일한 화면에 담아 인간과 자연의 조

화를 추구한 도교적 자연관과 우주관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춘화는 사랑방·대청마루·우물가·들녘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황실이나 상류층만이 나오는 중국·일본의 것과 달리 서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국의 춘화는 노골적인 성적 묘사에 그치지 않고 인간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화려했던 젊은 날을 재현해보려는 노부부의 안타까운 몸짓을 비롯해 집주인과 하인의 사랑을 훑쳐보는 하녀의 호기심 어린 표정,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은 채 사랑방 땃들에 놓여 있는 남녀의 신발만을 묘사한 그림까지 다양하다.

또 여인을 범하는 파계승부터 사대부의 방안에서 성급하게 치러지는 성행위와 질편한 기방풍경까지 당시 성풍속도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한창 행위에 빠져 있는 남녀를 훑쳐보는 숨은 어린 목격자를 배치하거나 성행위 자체보다는 옷을 벗으며 달려드는 행위직전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것 등은 조선시대 춘화가 쾌락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사의 하나로서 성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태호 전남대 교수는 “이런 진술함·낭만·해학 등은 중국·일본의 춘화와 구분되는 조선만의 멋”이라며 “이는 당시 사회를 인간이 살았던 역사로 복원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자료”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적나라한 현실감과 농염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성 풍속화는 누구를 위한 그림이었을까.

이런 그림을 보고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은 조선 후기 기술적 중언이나 아전 서리배였다고 추측되고 있다. 부의 축적과 함께 학문적 지식을 겸비했던 이들 신진세력은 당시 회화 시장에서 사대부 문인들에 버금가는 호스트로 등장했고, 그들에 의해 이전까지 실용적이고 속되게만 여겨졌던 춘화가 풍류적인 완성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영·정조기 사회경제적 안정으로 여유계층이 늘어나고 명나라에서 음란서적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미술의 에로티시즘’이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 욕망의 기본적 표현에서 비롯된 한국의 춘화는 19세기 당시 사회의 적당한 낭만과 적당한 퇴폐와 맞물린 자유분방함 표현인 셈이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조선의 춘화 중에는 혜원과 단원의 화풍을 모방한, 가짜 혜원과 단원의 춘화가 많이 나돈다. 이들의 호가 적혀 있고 버

것이 도장까지 찍혀 있지만, 호는 물론 도장까지 틀리는 등 가짜임이 금방 드러나는 작품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당시 춘화가들이 가짜 혜원·단원의 춘화를 만들어낸 까닭은 무엇일까. 대가의 작품인 양 꾸며 형식상으로나마 춘화의 격을 높임으로써 값을 올리려는 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비록 춘화라 할지라도 무명작가보다는 대가의 작품을 선호하는 독자의 성향을 이용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또 혜원과 단원의 이름을 빌려 사회 저변에 깔려 있던 유교적 장벽을 돌파해보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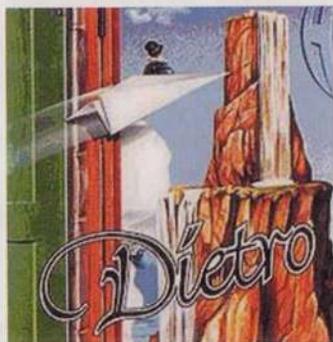
한국인은 성(性)을 부끄러워한다. 되도록 감추고 점잖은 자리에서는 입도 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살아 있는 생물의 가장 자연스런 감정인 성은 무조건 억눌릴 수만은 없는 법이다. 현대인은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억눌린 성의 욕구를 교묘히 해소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은 못본체, 안그런체 하면서 말이다. 이런 ‘점잖은’ 민족성 때문인지 각종 서구적인 이미지로 성이 가득 차는 가운데 한국인 특유의 성표현은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비디오로 성교육을 하고, 음란 비디오로 뭔가의 허전함을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옛날 사람들은 춘화첩을 보며 그 기능을 대신했다. 춘화를 보고 있노라면 ‘참아야 하느니라’ 식의 피상적인 조선의 의식체계를 바꿔 생각하게 한다. ☹

이탈리아 대중음악 속의 飛行, 사랑 찾아 하늘을 훨훨

음악평론가 성시완

나는 '볼로(Volo)' 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당시의 라틴어 수업시간 속으로 종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된다. 다시 소년이 돼, 희미해진 푸른 기억 속으로 비행(飛行)하는 것이다. 물론 2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Volo(飛行)!'

라틴어 첫번째 시간,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내 이름 앞에서 갑자기 멈추셨다. "자네 잘못 들어온 거 아냐?" 하며 그분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열심히 찾으셨다. 라틴어와 전혀 관계없는 공대생이 출석부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라고 대답하자 이어 "따라올 수 있겠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런데 '라우다스(Laudas : 칭찬하다)'라는 단어를 배운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교수님의 놀라워하는 두 눈과 마주치게 됐다. 칠판에 적어 놓은 '볼로(Volo : Flight)'라는 단어의 뜻을 그렇게 염려스러웠던 공대생이 맞췄기 때문이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던 교수님보다 더 놀란 것은 내 주위에 있던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다. 나는 그 이전에 라틴어를 공부한 적도 없었고, 문과 학생들보다도 어학 실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

했다.

하지만 그 뜻을 맞출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음악이었다. 사실 라틴어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당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음악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다보니 웬만한 라틴어 계열의 뜻은 사전을 뒤적거리며 기억 속에 넣어 둘 수 있었던 것이다.

이탈리아 그룹 중 '일 볼로(II Volo : The Flight)'라는 그룹의 이름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였다. '일 볼로'의 음반 커버는 우주를 비행하는 소년의 양쪽 눈에 아름다운 지구가 투영돼 있고, 또 다른 음반에는 푸른 세상을 날고 있는 종이 비행기가 그려져 있다. 나는 '볼로(Volo)'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당시의 라틴어 수업시간 속으로 종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된다. 다시 소년이 돼, 희미해진 푸른 기억 속으로 비행(飛行)하는 것이다. 물론 2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날아라, 노래하자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이탈리아 칸초네(Canzone) 한 곡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 라이터인 도메니코 모두뇨(Domenico Modugno)가 부른 '넬 블루 디핀토 디 블루(Nel Blu, Dipinto Di Blu : 푸름 속에서 푸른색을 칠하라)'라는 곡으로, '푸른 하늘을 한가로이 날아다니는 꿈'을 노래한 곡이다. 이곡은 우리들에게는 '볼라레(Volare)'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사 중에 즐겁게 후렴구로 흘러나오는 단어 '볼라레(Volare : 날아라)'가 너무 인상적이고, 좀처럼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긴 제목보다는 짧은 이 단어가 제목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날아라, 노래하자'라는 뜻인 '볼-라-레- 오오 칸-타-레- 오오호(Volare- oh! oh! Cantare-oh! oh! oh!)' 이 후렴구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를 따라 부르게 되며 흥겨움을 감출 수 없다. 그래서 대한항공 기내에서도 자주 선곡되는 곡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속에서 이 곡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푸른 하늘 위에 그림을 그리며 단독 비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 곡은 산레모 가요제(Festival Di Sanremo)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고, 칸초네 역

사상 초유로 미국 팝 차트 정상에까지 오른, 미국에서도 가장 알려진 이탈리아 노래, 비영어권 노래가 됐다.

이 곡이 발표됐던 1958년 그램미 시상식(Grammy Award)에서도 그 해의 최고 노래(Song of the Year), 최고 앨범(Album of the Year)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티아모, 산드라! 티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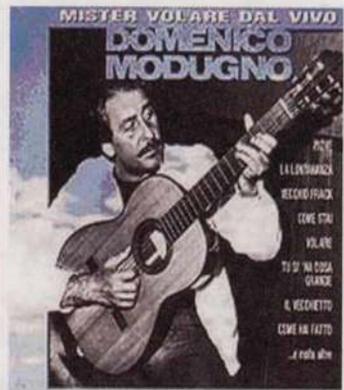
문주란씨가 부른 '공항의 이별'이라는 곡이 있다. 가사도 마음에 와 닿지만 허스키한 문주란씨의 목소리가 좋다고 하셨던 어머니! 이탈리아판 공항의 이별인 알바트로스(Albatros)의 '볼로아제타 친구에 제로 콧트로(Volo AZ 504, Flight AZ 504)'를 들을 때마다 '공항의 이별'을 떠올리게 된다.

둘 다 남녀의 이별을 노래한 것이지만, 알바트로스의 곡은 애인이 떠나는 비행기 편 명을 제목으로 담고 있으며 - AZ는 알리탈리아(Alitalia) 항공을 나타내는 코드이다 - 공항의 각종 효과음과 애절한 작별인사가 담겨져 있다.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다. 마치 전 세계의 잘생긴 남성들은 이탈리아와 터키에 모아놓기라도 한 듯 터키에는 독일여성 관광객들을 울렸던 잘생긴 남성들이, 이탈리아에는 많은 미국 여성들을

유혹했던 이탈리아의 바람둥이들, 멋쟁이들이 많았다. '아내나 애인을 이탈리아와 터키로 보내지 말아라!'라는 경고까지 있을 정도니까.

한마디로 이 곡은 이탈리아에 여행객으로 날아온 여성과 이탈리아 남자의 하룻밤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작품이다. 후반부에 흐르는 남녀의 처절한 작별인사가 매우 드라마틱한데, 광음을 일으키며 이륙하는 비행기를 향해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외치는 남성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다. '티아모, 산드라! 티아모!(Ti Amo, Sandra! Ti Amo!)'



이탈리아인들의 '비행(Volo)'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교통과 운송수단의 차원을 뛰어 넘어, 요정처럼 나비의 날개를 달거나, 천사처럼 새의 날개를 달거나 그것도 아니면 종이 비행기를 타고 자유나 사랑을 향해 비행한다.

자유와 사랑을 향한 비행

1970년대 중반 국내에서도 크게 히트했던 팝송들 중에서 로드 스투어트(Rod Stewart)가 부른 'Sailing(원곡은 Sutherland Brothers-1972년작)'이라는 곡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 곡을 이탈리아에서는 '이딕딕(I Dik Dik)'이라는 그룹이 '볼란도(Volando)'라는 제목으로 불렀는데, 재미있는 것은 두 곡은 같은 곡이면서도 제목과 내용은 정반대이다. 'I am Sailing'은 '나는 항해 중이다'이고 '볼란도'는 '블로'의 동명사로 'I am Flying', 즉 '나는 날아간다'라는 뜻이다. 영국인들이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사랑을 쟁취하겠다고 노래한다면, 이탈리아인들은 사랑을 찾아 한가롭게 하늘을 훨훨 날고 싶다고 노래한다.

이탈리아인들의 '비행(Volo)'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교통과 운송수단의 차원을 뛰어넘어, 요정처럼 나비의 날개를 달거나, 천사처럼 새의 날개를 달거나 그것도 아니면 종이 비행기를 타고 자유나 사랑을 향해 비행한다.

때론 그 조그만 종이 비행기는 거대한 종이배로 모양을 바꾸어 하늘을 비행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역시 비행기를 설계했을 때 이러한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도 이탈리아인이었으니까. 그의 이름이 로마 국제공항의 이름이 된 지금까지도 그의 후손들은 베네치아의 가면무도회 복장을 차려 입고, 마치 스키를 타듯이 종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싶어 한다.

비행은 곧 '달콤한 인생'

프랑스인들이 생 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ery)나 많은 비행 기록을 세웠던 여성 비행사 엘렌 부셰(Helen Boucher)처럼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콩코드와 같은 음속 여객기를 탄생시켰다면, 이탈리아인들은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Federico Fellini)의 영화제목처럼 '블로(Volo)'를 '달콤한 인생(La Dolce Vita, 1961년작)'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때문에 알리탈리아(Alitalia) 항공이 심심치 않게 파업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달콤한 인생(La Dolce Vita) 때문에 우리 여행객들은 종종 골탕을 먹는 수도 있다. 몇 년 전, 이탈리아 밀라노의 리나테(Linate) 국제공항에서 무려 8시간을 기다린 생각을 떠올리면 눈앞이 아찔하다.

알리탈리아 항공의 갑작스러운 파업 때문에 출발이 장시간 연착됐고, 아름답고 친절한 여성 승무원 대신 승무원 아저씨들이 건네준 딱딱하고 식은 음식을 먹었던 추억(?)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대한항공 연결편을 놓치고, 추석날 장손의 도리를 하지 못했던 쓰라린 기억이 떠오르지만, '블로(Volo)'에 관한 이탈리아인들의 낭만적인 상상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된다. ☺



AIR@ARTS 코너는 대한항공 사보 Sky News에 실린 글을 다시 실고 있습니다.

KOREAN AIR webzine **Sky News**

그저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스튜어트 올산스키 外 지음/전영택 옮김/공리)

KBS 국제부 기자 이진성

‘김수한무...’로 시작되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지. 오래 살라고 지어준 무려 쉰 일곱 자나 되는 긴 이름을 달고 다닌 주인공은, 어느날 물에 빠졌는데 결국 그 긴 이름 부르는 사이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촌극의 바탕에는 장수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우리의 현실 지향적인 인식이 빚어낸 신화가 어디 이뿐일까.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대체로 공감한다. 바늘에 실가듯 붙어 다니는 ‘무병’과 ‘장수’를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치는 노력은 또 얼마나 눈물겨운지.

외국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각종 속설들은 미덥지 못한 실험을 거쳐 ‘의학 뉴스’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채 날마다 타전된다. ‘운동이 장수에 가장 큰 보약’ 등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비결(?)은 물론 ‘적당히 게으르면 장수’, ‘조금 뚱뚱한 남성이 장수’,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장수’ 등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까지 가지가지다.

이 책은 먼저 이처럼 사람들이 장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서고금을 망라하며 걸어온 여정을 되짚는다. 성서에서 출발, 중세시대를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난무한 온갖 통설·속설들. 허황하지만 오래 살기 위한 인간의 눈물겨운 시행착오들이 연대기순으로 펼쳐진다.

이 과정을 거쳐 현대 과학은 인간의 노화와 죽음이 유전적인 산물임을 밝혀낸다. 이를 규

명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과 그 덕분에 드러나게 된 노화의 실체가 어떠한지 보여주면서 책은 ‘인류의 수명이 얼마까지 연장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탐색한다. 각종 생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명과 관련된 통계의 허구를 반박하면서 저자들이 내린 결론은, 장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좀 비판적이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늙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간 수명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짧다면 짧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무슨 특별한 장수 비결을 기대하고 책을 든 이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뭘 먹기만 하면 불로 장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사이버 과학에 불과하다는 정도는 알 수 있게 되니 그것도 나쁘진 않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63억 명. 새 생명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상황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 또한 조금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삶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성찰 없이 그저 몸이 탈나지 않고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건 분명 윤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63억의 인구를 가진 지구에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시킨다면 20명은 영양실조고 1명은 굶어죽기 직전이라는 주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오래 사는 것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볼 시기가 온 것이다. Ⓣ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터넷서퍼 sy_lee@cultizen.co.kr 이 수 영

자연주의라는 말뜻은 이상하게도 상반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학에서 자연주의라는 말은 현실의 비참함을 잔혹하리만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향을 뜻한다. 반면에 밀레의 <만종>, <이삭줍기>에서처럼 미술에서 자연주의란 문명의 삭막함을 떠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자연'이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포근한 이미지, 또 한편으론 '적나라한 것'이라는 섬뜩한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듯하다.

요즘 상품시장에서 유행하는 '자연주의'란 물론 좋은 쪽의 의미이다. 뉴에이지 또는 생태주의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유행은, 도시적 삶에 어떤 새로운 건강과 활력을 가져다줄 대안적 상품 혹은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한다.

공해와 화학물질에 찌든 산업사회,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끝도 없는 일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탈출'과 함께 '치유'를 필요로 한다. 탈출의 필요가 여가산업을 낳았다면, 치유의 필요는 이른바 '자연주의 상품'을 낳았다. 의식주 관련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자연주의 이념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자연주의 식품이다. 화학조미료, 온실재배, 인공사료, 통조림 가공 등을 배제한 유기농산물(www.newfood.co.kr)이 각광받고 있으며, 한번 접하면 그 매력에 정신 없이 빠져들게 된다는 허브(www.herbenjoy.com) 관련 상품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서양의 학 대신 한의학(www.drherb.ne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런 자연주의 풍조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물질로 만든 화장품(www.aromaeshop.co.kr)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으나 최근 국내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다. 천연소재의 옷감에 향토나 꽃잎 등 천연 염료(www.nart114.com)로 염색한 옷 역시 관심을 끌고 있으며, 패션계는 녹색을 주조로 하고 느슨한 실루엣에 편한 착용감을 내세운 자연주의 코디네이션을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생활소품(www.naturalzone.co.kr)과 육아용품(www.avent.co.kr) 등 다양하게 범람하는 자연주의 상품들을 보노라면, '자연' 역시 일종의 상품으로 생산되고 팔리고 있을 뿐이며 산업사회의 폐해를 해결할 길은 또다른 산업의 창출뿐인가라는 좀 암담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더욱 '자연주의'의 이중적인 의미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주의는 단순히 상품에만 그치고 말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나아가 '자연주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부를 만한 것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www.bike.or.kr)와 같이 '자연' 동력을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권장운동과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www.countryhome.co.kr), 뜻 있는 사람들의 귀농운동(www.refarm.org), 자그마한 실천에서 시작되는 환경운동(www.fulssi.or.kr) 사이트들을 둘러보다 보면, 자연주의의 유행은 왠지 거리감 있게만 느껴졌던 환경의식을 나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작은 출발점이 아닐까 긍정해보게 된다. ☺

컬러 텔레비전 개국 시대물

- 해적, 디스코왕 되다 -

영화평론가 김지훈

〈해적, 디스코왕 되다〉는 말 그대로 충천연색 컬러 텔레비전 방송이 개국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토요일 밤의 열기〉에서 존 트래볼타가 선보인 디스코가 있고, 한때 멋 좀 부린다는 '양아치' 애들이 앞다투어 즐겨 입던 디스코바지가 있고, 1980년대 서민 거주지의 상징이었던 달동네가 있다. 또한 이 땅의 아버지들이 산업역군이란 이름 아래 중동의 공사 현장으로 가던 그 시절이 있고, 그런 아버지의 부재 속에 중년 부인들을 사로잡았던 '춤바람'과 '제비'가 있다. 이쯤되면 촌티 나는 원색 옷차림과 서울우유 로고가 새겨진 하얀 우유병은 당연히 여길 정도다.

80년대 초반에 일어날 법한 에피소드들과 문화적 코드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웃음과 감동을 빚어낸 기술은 〈해적, 디스코왕 되다〉의 최대 미덕이다. 주인공은 이정진·임창정·양동근 등 그 시대와 조금 멀리 떨어진 틴스타(teenstar)들이지만 그들이 드라마나 다른 매체에서 구축한 이미지가 각자의 캐릭터에 그대로 전용되어 무리 없이 소화된다. 정작 이들을 더욱 탄탄히 뒷받침하는

것은 개성 만만한 조역들이다. 풍지계를 지는 임창정의 아버지로 김인문이, 남편 없이 홀로 미장원을 경영하는 해적의 어머니로 김영애가 적절한 드라마적 연기를 한다. 그렇지만 이들보다 더욱 압도적으로 영화를 빛내는 사람은 오랜만에 스크린 나들이한 이대근이다. 80년대 토속적 예로 영화에서 굳어진 천연덕스럽고 늙수그레한 마초(macho·남성적인 사람)를 상징하던 그가 이제는 젊은 시절 전설적 맘보킹이었던 나이트클럽 보스로 변신한다.

가파른 골목길과 '댄스장', 림살림과 나이트클럽을 넘나드는 공간의 이미지는 디스코 경연대회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렇지만 이 모든 환경과 80년대 초의 문화적 코드는 아이로니컬하게도 그때 그 시절을 살았던 관객들을 유혹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영화는 그 시대에 대해 어렵פות한 기억만을 가졌거나 대중매체에서 보았던 기억만을 간직한 10대와 20대 관객들을 겨냥한다. 그래서인지 〈해적, 디스코왕 되다〉는 '베스트극장' 류의 페이스스가 가미된 코미디이지 그때 그 시절의 회로에 락에 깊숙이 카메라를 개입시키는 않는다. ㊦



걸작을 찾아서(1)

마술피리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서울시 교향악단 양창섭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하였지만 오페라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였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들이 갖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고 정치적인 인간이었던 베토벤은 모차르트 오페라의 경박함과 세속성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술피리〉에 대해서만큼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 결과로, 직접적으로는 두 개의 아리아를 주제로 작곡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들을, 간접적으로는 〈피델리오〉를 베토벤으로부터 얻게 된다.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1791년 완성되어 이틀만에 초연되고, 계속해서 만원을 기록하였다(표를 사기 위해서는 최소 2시간 이전에 극장에 와야 했다고 한다). 성악-피아노 스코어는 얼마 안되어 6개 도시에서 출판되었고, 1800년 무렵 〈마술피리〉를 올리고 있는 극장은 독일에서만 65군데였으며, 19세기 초반에 이 오페라는 모스크바, 파리, 런던 등을 거쳐 뉴욕에까지 진출하게 된다. 이는 이 오페라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말해준다.

〈마술피리〉는 그 심오함과 오락성의 겸비로 인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비견될 만하다. 초등학교생이 읽는 〈템페스트〉와 전공자가 읽어내는 그것

은 다르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수준에서 읽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자신의 해석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마술피리〉도 그러하다. 어떤 이들은 타미노와 파미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이고, 어떤 이들은 프리메이슨의 사상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볼 것이다. 누구는 모차르트가 여성을 비하했다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음악적으로 〈마술피리〉는 당대까지 오페라의 총합이라고 할 만하다. 형식적으로는 '징슈piel (Singspiel, 대화가 있는 독일어권 오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파파게노의 노래에서는 민요적인 요소나 오페라 부파의 분위기, 타미노와 파미나의 노래들에서는 이탈리아의 아리아와 리트풍이 느껴지며, 밤의 여왕의 노래는 오페라 세리아적인 맛을 내고 있다. 거기에 엄숙한 사라스트로의 노래와 바로크적 합창이 가세한다. 모차르트는 이 모든 것을 결합시키면서도 천의무봉(天衣無縫)의 재능을 발휘한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별 것 아닌 데에서도 찬란히 빛을 발한다. 병어리가 된 파파게노와 이를 놀리는 타미노가 부르는 노래("Hm, Hm, Hm, ...")나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노래("Pa-Pa-Pa, ..."), 세 시녀들의 노래 등이 보여주는 언어 유희와



그것을 완벽히 뒷받침하는 음악은 <마술피리>를 떠받치는 작지 않은 즐거움이다. 거기에 타미노와 파미나, 밤의 여왕 등이 부르는 주옥같은 노래들이 등장한다. “Dies Bildnis ist bezaubernd schön”(이 그림은 얼마나 아름다우나), “Der Hölle Rache kocht in meinem Herzen”(지옥의 복수가 내 마음에 불타오른다), “Bei Männern, welche Liebe fühlen”(사랑을 느끼는 사내들에겐) 등의 노래는 어떤 초심자라도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멋진 아리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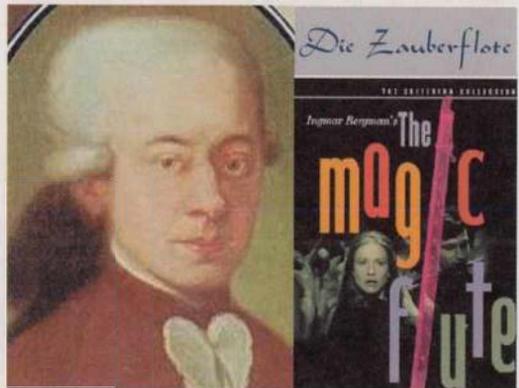
<마술피리>를 처음 보는 관객들은 사라스트로가 악한이며 밤의 여왕이 억울하게 딸 파미나를 납치당한 어머니라고 생각하지만, 곧 타미노와 파파게노가 파미나를 찾아가는 여행에 동참하다 보면 선악 관계는 역전되고 만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객들은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섬기는 사라스트로와 사제들을 만나고, 이성과 자연과 지혜의 사원으로 인도된다. 장난기 넘치는 파파게노와 사랑에 눈이 먼 타미노에 이끌려 관객이 도달하는 지점은 박애의 이념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다.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코스모폴리탄적인 단체인 프리메이슨의 이념이 <마술피리>에 녹아

들어 있다는 주장이 근거를 갖는 것도 이러한 즐거움에 힘입은 바 크다. 타미노의 입회 의식과 거기에 나오는 상징들은 프리메이슨 교단의 것이다.

3이라는 숫자는 프리메이슨의 이상인 아름다움, 힘, 지혜를 상징한다. 오페라 전체를 지배하는 E플랫장조는 플랫이 3개이고, 서곡과 이후에 반복되는 3개의 화음, 3명의 시녀들, 3명의 정령들, 타미노가 두드리는 3개의 문 등등. 심지어 타미노는 프리메이슨의 후원자인 요제프 2세, 밤의 여왕은 결사를 탄압한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식의 해석까지 등장한다. 분명한 것은 당시에 프리메이슨 결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것이었다는 점이며, 더욱 분명한 것은 이런 구구한 해석들은 <마술피리>가 갖는 놀라운 흡인력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마술피리>는 고전이 갖추어야 할 조건, 곧 작품성과 열린 해석가능성, 대중성 등을 두루 갖춘 오페라 사상 길이 남을 위대한 성과물이다.

수많은 음반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음반은 찾기 쉽지 않다. 분덜리히의 타미노가 인상적인 칼 뵘 지휘 음반, 도이테콕이 부르는 밤의 여왕이 인상적인 게오르그 슐터 지휘 음반, 그리고 신선한 지휘가 돋보이는 아르농쿠르의 음반이 멋지다. 영상물로는 소극장 무대의 참신한 연출이 돋보이는 볼프강 괴넨바인의 DVD가 있다. ⊕



두 바퀴로 달리는 길

방송작가 김 은 희

자전거를 샀다. 거금 15만원을 주고. 내가 바구니 달린 예쁜 자전거를 샀다는 소식을 듣고 펠릭스는 흰 치마와 푸른색 스니커즈 운동화를 사주겠다는 사람도 생겼다(물론 아직까지 받진 못했다). 언니는 복잡한 도시에서 잘못해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 거냐고 괜히 걱정을 한다. 싫증을 잘 내는 내가 얼마나 타는지 두고 보자. 아예 통박부터 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나는 한층 목소리를 높여 여기저기 자랑을 하거나, 자전거 안장 위에 앉은 내 모습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대느라 더 호들갑을 떨어댔다.

사놓고 보니 왜 진작 안 샀나 싶다. 생각해 보면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자전거를 갖고 싶었는데 말이다. 정작 자전거를 산 건 아주 우연히,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 자전거 가게를 발견하자마자 냉큼 지갑을 꺼내 들었던 것. 좀처럼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것만큼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짓이었다. 때론 선부른 충동구매 하나가 생활을 통제로 바꿔놓기도 하는 법이니까.

천성이 게으른 편인 나는 한번 집안에 들어오면 좀처럼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시내를 나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휴일의 내 벗들은 책이나 비디오가 되고, 세상에서 비껴나 집안에 갇혀 있을 때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자전거를 사던 날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했다. 캐주얼 복장에 운동화와 모자로 무장하고 자전거를 동반한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바뀌기 시작한 건 생활리듬뿐만이 아니었다.

즐기차게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를 달렸다. 무엇보다 즐거운 건 몇 개의 블록을 지나 옆동네의 큰 시장까지 가는 길이다. 경쾌한 경적소리에 앞서가던 여학생들이 가운데를 갈라 길을 내주는 게 신기하고 소년들이 등뒤에서 휘익~ 휘파람을 불어대는 게 재밌다. 한쪽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본, 닭갈비집 아주머니들의 싸움구경까지도 즐겁다. 유모차 속 아기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 아기엄마의 뜨악한 시선을 받을 땐 씨익 웃어주고 돌아서서 자전거를 출발시키면 그땐. 낮익은 얼굴들도 생겼다. 늘 똑같은 주름을 달고 계시는 참의장수 아주머니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카세트 잘 작동되고 있죠?" 물어보는 전자대리점 아저씨. 선거 유세장에서선 구청장후보가 직접 뛰어와 자전거 위에 올라탄 내게 꾸벅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다가 하마터면 사람을 치일 뻔했다. 마침내 담벼락에 자전거를 부딪치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내던 날, 나는 퍼뜩 이런 문장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다.

"참 오랜만이구나..."

그리고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자전거를 꿈꾸었는지, 비로소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소시적 한때. 외출을 할라치면 늘 두 눈을 부릅뜨고 다녔드랬다. 그땐 귀에 헤드폰도 안 끼고 손에 책도 안 쥐었다. 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지도 않았다. 대신 내 앞에, 옆에, 저만치 있는 사람들, 혹은 창 밖을 무심히 흘러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다. 그들의 눈빛을, 표정을, 손짓 발짓을. 지금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사연을 가진 이일까 혼자 상상해보며. 저기 걸어가는 저 늘씬하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실은 엄청난 고민을 안고 매일 끙끙대고 있다는 걸 누가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변비 같은.

그땐 그게 참 재밌었다. 그토록 적나라하고 신선하고 다양한 사람살이를 어디서 또 접할 수 있던 말인가. 소설보다 풍부하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풍경들. 버스 안에서 50명을 만나면 50가지 사연을 만난 것 같고 지하철 안에서 100명을 보면 100가지 삶의 풍경을 본 것 같은 기분. 음... 난 나중에 돈벌어도 절대 자가용은 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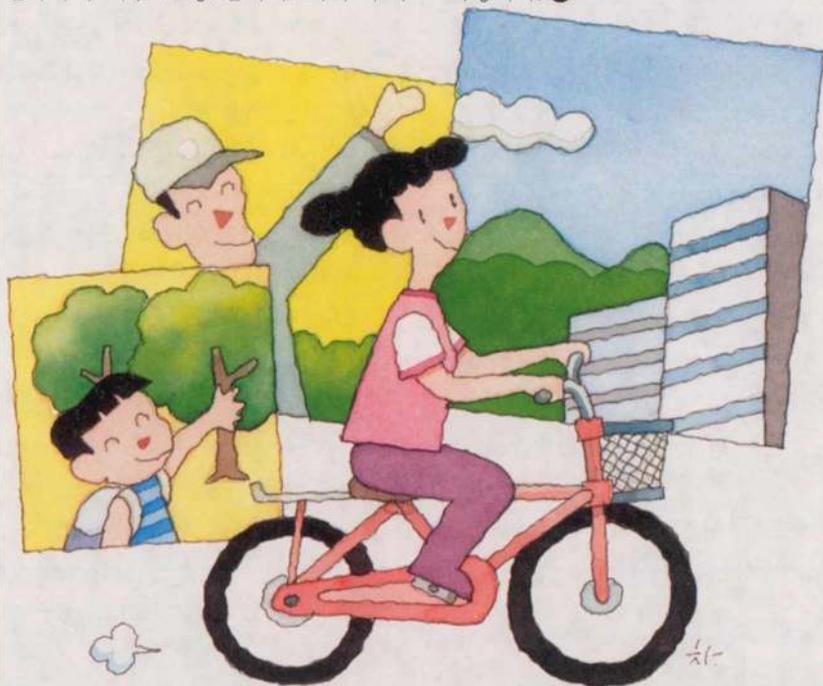
그런데 이상하다.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부터, 잘 보이지가 않았다. 여전히 거리의 사람들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혹은 회색이나 검정색.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는 언제 이렇게 색맹이 돼버렸을까. 그리고 보니 나는 100미터를 걸을 때도 헤드폰을 끼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면 책을 손에 쥐고 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의 얼굴은 쳐다보지 않는다.

눈빛을 반짝이며 사람 표정 살피기. 거리 구석

구석의 풍경에 눈길 주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 다시 찾고 싶었던 즐거움과 행복이구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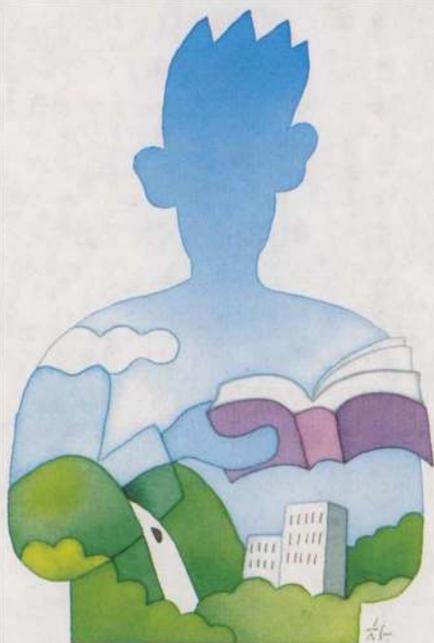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해 그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나는, 어느 날 슬쩍 주차장 쪽으로 가 보았다. 설마 이 넓은 곳에 자전거 한 대 놓을 빈틈이 없을까. 그런데 웬걸, 주차장 한쪽엔 엄연하게 오토바이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그 공간을 발견하는 날, 나는 마치 오너 드라이버라도 된 냥 기분이 설레었다. 집에서 가깝긴 하지만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터라 자전거로 출퇴근 하리라던 계획은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가한 토요일 같은 날엔 꼭 자전거를 끌고 회사까지 가 볼 작정이다.

내 자전거는 TV 광고 속의 한석규나 정우성의 그것처럼, 거의 소형 자동차 한 대 값과 맞먹을 만큼 비싸지 않다. 음료광고의 여자탤런트처럼 휘날릴 긴 머리카락도 없다. 하지만 누가 알까. 운이 좋아 어느 날 ET라도 만난다면 하늘을 날아볼 수도 있을지. (역시 자전거는 바구니가 달린 게 좋다!) 그런데 곧 장마가 온다니, 이것 참 걱정이다. ☹



修己와 安人

제1전투비행단 중령 이 면 우



수기(修己)라 함은 “옛날 어진 이가 가르쳤던 도를 배우고 익혀서 자기 몸에 짓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 했고, 선비란 학자, 군자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선비, 즉 군자라 일컬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의 도리를 익혀서 자기의 몸에 짓게 한 뒤에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마치 하얀 종이에 물이 스며들 듯 상대방의 마음 속에 가르침이 젖어들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기 몸에 짓게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닦는 일, 곧 자기수양이니 이것을 수기(修己)라 하는 것이다.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보면 “이른바 몸을 닦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마음에 성내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또한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마음을 바르게 하면 몸도 저절로 바르게 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안인(安人)이라 함은 “수기로써 가르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안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덕목이 수기하는 것이다. 그러한 뒤에야 다른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이요, 교화를 받은 사람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참된 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을 흔히 물질만능의 시대라고 한다. 물질만능이란 경제적 부를 가치기준으로 하여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비인간적인 수단일 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척도를 어찌 물질로써 우선할 수 있단 말인가? 물질은 그저 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주는 방편일 뿐이지 결코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만을 앞세우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인 양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 사람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을 도야하고 그것을 근본으로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예의를 숭상하고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올바른 인격체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하지 않을까?

들녘의 만물은 질푸른 녹색으로 그 성숙함을 더해가고 있다. 성숙함이 무르익어 가면 저절로 고개를 숙일 줄도 안다. 우리네 사람들도 그러한 자연의 도리를 체득하여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정당한 가치 기준인 도덕성을 함양하는 바른 마음으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하세요!

제3방공포여단 대위 홍 승 권

하절기가 되면 심심찮게 설사를 앓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아마도 하루 이틀 고생해 본 사람이라면 응급처치는 물론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평상시와는 달리 변이 묽고 배변횟수가 하루에 3번 이상 늘어나면 설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름철의 중요한 질환으로 법정 전염병 1군에 속하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O-157)과 3군에 속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한 질환들이다. 제1군은 환자발견 즉시 격리 및 보고를, 제3군은 발견 후 7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위의 법정 전염병 외에도 흔히 접하는 설사병에는 포도상구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한 식중독이 있다. 이로 인한 설사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체중이 감소된다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하지 않은 설사도 탈수를 일으킬 수 있고 때로는 전신쇠약과 혼미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설사를 하는 동안에 수분을 섭취하면 더욱 설사가 심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설사로 인해 잃어버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수를 피하는 것이 좋다. 장을 자극하기도 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함으로써 탈수를 더욱 조장하기 때문이다. 비감염성 설사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설사가 멈추지 않고 혈변 또는 점액성변 등 세균성감염이 의심되면 꼭 병원을 찾아야 한다.

증상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죽이나 스프, 주스 등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이러한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게 되면 서서히 고형 음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

기상 재해가 많은 7월에

73기상전대 중령 염영경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지를 적시고 폭염이 내리쬐는 7월이면 시원한 여름과일이 탐스럽게 익어간다. 시냇가에서 물놀이하고 원두막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벗삼아 과일을 먹으며 콧노래를 부르던 어릴 적 기억이 아련히 눈가를 맴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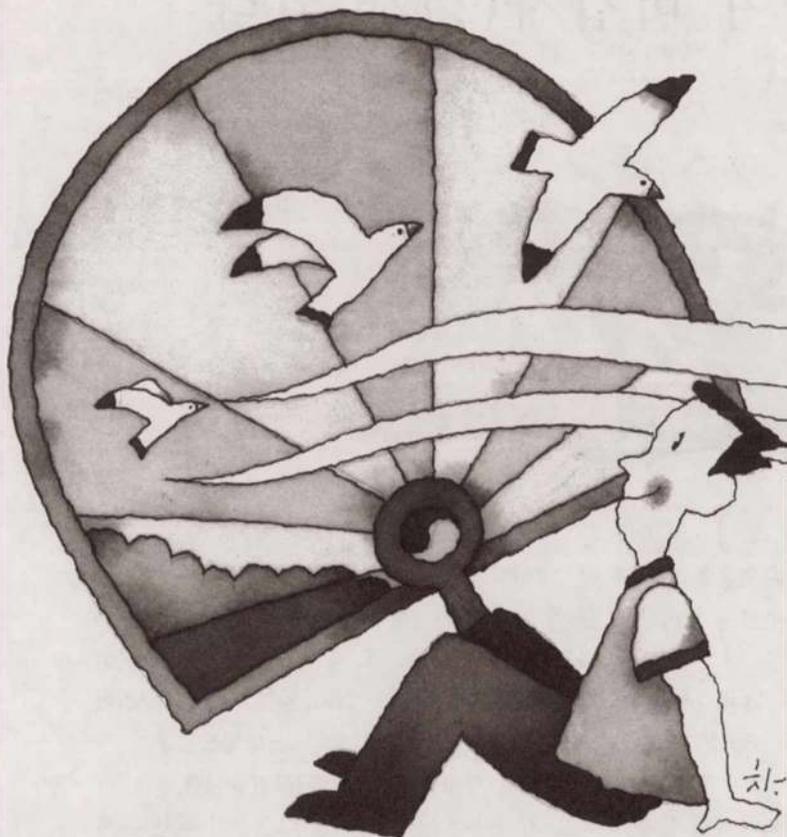
7월, 중국대륙에 광범위한 저압대가 발달하고 장마전선은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위치하면서 하순까지 지루한 장마가 이어진다. 하순경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영향을 주면서 장마는 끝나고 혹서기에 접어든다. 기온은 22℃에서 29℃로 날이 지날수록 무더워지고 강수량은 260mm로 연중 가장 많은 비가 오는 시기이다. 장마기에는 집중호우현상이 반복되고 뇌우와 돌풍으로 많은 피해가 생긴다. 최근 10년간 통계에 의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여름철(6, 7, 8월) 연평균 피해는 이재민 약 14,000명, 재산피해 4,760억원이며, 그 중 7월 한달 피해는 이재민 7,600명, 재산피해 2,390억으로 여름 전체 피해의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7월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이다. 따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대책을 세우고, 주요 군사시설의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해야겠다. 또한, 뇌우의 피해에 대비해서 레이더 시설, 안테나, 전기시설 등을 점검하며,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작업과 의약품을 구



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마기와 혹서기가 이어지면서 날씨변화가 많은 시기이니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절기로는 본격적으로 더운 날씨로 접어들며 작은 더위라는 소서(小暑)가 7일, 큰 더위인 대서(大暑)가 23일이다. 초복은 11일, 중복은 21일이다.

청포도가 익어 가는 7월은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 절정은 겨울 대한(大寒)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대서로서, 대서 이후 20여 일이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이다. 불볕더위, 찜통더위도 이때에 해당된다.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며 '더위 때문에 염소 뿔이 녹는다'고 할 정도다. 특히 무더위를 초·중·말 삼복으로 나누고 소서, 대서라는 큰 명칭으로 나눈 것도 무더위의 경중을 알리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였을 것이다. 기상재해가 가장 많은 달, 게다가 더위로 짜증이 나는 시기이다. 그러나 서로 배려해주고 도우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활기찬 7월을 보내보자. 📌



뜨거운 7월, 환경 친화적인 여름나기

공군본부 환경과

여름 한낮은 뜨겁다. 모든 것을 녹일 듯 기세 좋게 떠오르는 태양, 그 아래에서 땀땀하게 고개 세우고 맞설 장사는 세상에 없다.

하지만 여름 한낮에도 사람들은 살맛나게 시원한 풍경을 펼쳐낼 줄 알았다. 더위를 이겨내는 그 지혜, 바로 부채를 만들어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애써 부채질을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뽁뽁 날개 돌리며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집집마다 버티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편한 만큼 그 만큼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부채로 더위를 쫓던

시절에는 들어볼 수조차 없었던 희한한 냉방병이 새로 나타났는가 하면, 더위를 쫓겠다고 밤새워 선풍기를 돌리다 귀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도 사이사이 들려온다.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기를 써야 하고, 그러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오염물질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세상이 아무리 편리하고 좋아진다 해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라려주는 듯하다.

가볍게 흔드는 부채, 그 시원한 손맛에서 느낄 수 있는 청량감으로 올 여름을 지내보자. ♣

공군인이여 비겁자(?)가 되라

제17전투비행단 법무실장 대위 이승철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바탕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삶을 질서 있게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상관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법'이라는 놈이 사실은 늘 언제나 내 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며 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된다면 이젠 법이란 게 무엇인지 조금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군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엄청난 범죄행위 같아 보이는 죄명이지만 실제로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대부분은 단순한 싸움에서 비롯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이 몇 번 오가면 바로 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처음 시작은 술김에 호기를 부려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심하게는 구속으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벌금을 내고 전과기록을 하나 만들게 되는 예상치 못한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락철인 요즘,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꼭 짜여진 틀 안에서 긴장된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 장병들이 오랜만에 가지는 휴식의 시간에 조금은 느슨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종종 이런 불미스런 사태로까지 이어지곤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한 가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공군장병들이 특별한 악의나 실수가 없었을지라도 당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휘말리면서 함께 입건되어 처벌을 받

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은 싸움에 개입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을지라도 같이 있던 동료가, 가족이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도 함께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싸움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말리기만 했을지라도 이성을 잃은 상대방으로부터 함께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진실이야 어떠하든 일단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의 과정은 본인에게나 부대에 모두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신이 원치 않았던 결과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주변상황에 의해 좌우되어 초래되는 경우가 많음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실 사병들이 외박이나 휴가를 나갈 때면 제가 언제나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정답은 이렇습니다. "빨리 도망을 가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를 합니다."

같이 싸우는 것만이 친구를 위한 용기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과 친구를 위해 한발 물러날 줄 아는 냉철함이 어찌면 더 큰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공군장병 여러분, 잠시 비겁한 것이 더욱 지혜로울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젊은 날의 인생론

교육사령부 소령 신 봉 섭

“당신이 조금만 변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행동을 바꿔라.
그러나 획기적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 스티븐 코비(Stephen R. Covey) -

변화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만물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다. 우리의 인간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모든 것이 변화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사고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나는 곧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1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1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오늘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루도 무의미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제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타인들에 비해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과 같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제가 오늘이 아니기 때문이다.

M. 루틴은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 마음도 매일 다듬지 않으면 안된다. 한 번 청소를 했다고 방안이 언제나 깨끗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마음도 한 번 반성하고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세운 뜻을 오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 곁을 떠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좋은 뜻은 매일 마음속에 새기며 되씹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다가오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는 인생의 투자가 더욱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제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타인들에 비해 뒤쳐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과 같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제가 오늘이 아니기 때문이다.

논산훈련소 강병재 목사님께

제11전투비행단 중위 강 미 영



무더운 여름, 웬지 겨우내 논산훈련소에서 수많은 훈련병들의 추위를 따뜻하게 녹이셨을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훈련받을 때 살갓을 에는 추위는 왜 그리 혹독하게 느껴졌는지, 훈련이 끝난 후 집에 다녀오면서, 부대 울타리 넘어 보이는 봉화교회를 지나다보니 10년 전 초소를 따라 손수 커피와 초코파이를 돌리시던 목사님의 따뜻한 손길이 아련히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언덕 위의 작은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시작하며 목사님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 후 고 3때 지금의 빨간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완성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께서서는 다른 곳으로 전속을 가셨고, 너무나도 따뜻한 분이었기에 저는 오랫동안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목사님과 만남을 주신 건 목사님을 알게 된 지 10년 되던 해, 사회교육사 자격으로 명동 YWCA에서 실습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 해 여름, 입대 전에 목사님을 다시 뵈 수 있었죠.

목사님 기억하시죠? 목사님께서 전속가시며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물으셨던 것을. 저는 “꼭 군인이 될거예요”라고 대답했었고, 목사님께서서는

“그럼 언젠가 군복을 입고 다시 만날 수 있겠다.”며 웃으셨습니다. 그 때가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설교 중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셨을 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위해 그곳에 드나들면서, 군인 아저씨라고 부르던 수많은 장병들과 보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 덕분에 저는 비록 그들을 지휘통솔하는 상관이지만, 편안한 친구 또는 누나처럼 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입대할 때,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며 누구보다도 흐뭇해하시던 목사님. 비록 목사님께서서는 육군에서, 저는 공군에서 다른 임무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령이신 목사님께서 훈련병들을 포함한 장병들을 정성껏 대하시듯, 저 또한 몇 개월 전 중위로 진급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제 결심과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찾아뵈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3 2 0 - 9 1 3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02.6.1 ~ 2004.5.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간 공군은
군을 사랑하는
두에 의해
들어지고 있습니다.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공군은
을 사랑하는
에 의해
어지고 있습니다.

월간 공군

320-913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효) 6231-7, 02) 506-6231-7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퀴즈로 퍼즐로 정답]

.....

.....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퀴즈로 퍼즐로 정답]

.....

.....

.....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
상품을 드립니다.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
상품을 드립니다.

참모총장기 태권도대회를 마치고

공군본부 대위 허 유 석



제9회 참모총장기 태권도대회가 지난 5월 개최되었다. 대회장소인 강릉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오랜만에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새로 뚫린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터널을 시원하게 달리면서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이미 심판요원으로 다섯 번째 참가하는 것이지만, 이번 대회는 이전의 대회와 달리 큰 의미가 있었다. 바로 '차등점수제' 도입 후 첫 번째 대회라는 점이다.

WTF(세계태권도연맹)이 제정하여 2002년부터 시행되는 차등점수제를 살펴보면, 척추를 제외한 몸통을 공격하였을 때(1점), 뒤통수를 제외한 얼굴을 공격하였을 때(2점), 얼굴 공격 후 상대방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 주심이 계수를 할 때(1점 추가)를 나누어 점수가 매겨진다. 따라서 과거의 경기와 달리 얼굴 공격시에 2점이나 3점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수들은 더욱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관중들은 태권도의 갖가지 기술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태권도 경기가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변화되었다.

해마다 심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선수들의 실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새로 바뀐 점수제도 때문인지 과감한 얼굴공격을 위한 발차기 기술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스피드 있게 몸통만 여러 번 공격하는 선수보다는, 단 몇 차례라도 얼굴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통해 경기결과에 소청을 제기하는 부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역시 많은 이들에게 유쾌한 기분을 선사하였다.

아쉬운 점은, 새로 제정된 규칙에 따라 선수들의 노력과 기량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규칙에 대해 심판들이 100% 적용하지 못하여 소중한 점수를 얻지 못했던 경기가 몇 번 있었다. 비록 경기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한 선수들의 득점권리를 심판들의 사소한 실수로 잃어버리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겠다.

이제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참모총장기 대회 입상자들을 중심으로 선수선발 및 합숙훈련을 할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 심판을 보면서 느낀 입상선수들의 실력은 최고라 생각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공군의 우승을 위해 공군 전 장병이 대표선수들을 계속 독려해야겠다.Ⓣ



안재홍 (安在鴻)

1892년 경기 평택 출생. 1912년 일본 동경에서 거주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선유학생 학우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1913년 1월 일본 조도전 대학에 재학중 중국 상해로 건너가 독립단체인 동제사에 가입하였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령에 따라 서울에서 청년들을 규합하여 청년외교단을 조직하고 총무를 담당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9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7년 1월 신간회의 총무간사에 피임되어 강령을 작성하고 발표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각 지방의 창립총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연 등을 실시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27년에는 동삼성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들을 응호하기 위한 동맹집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12월 전남 광주에서 학생운동이 봉기되자 당시의 정치단체인 신간회와 협동하여 조선민중대회를 열고 일제의 민족차별적인 처우를 규탄하다가 체포되어 1930년 1월 1일 기소유예되었다.

1937년 5월 남경관공학교 학생모집 운동으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 회부되고 1938년 5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1939년 3월에는 흥업구락부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42년 12월 조선어학회에서 착수한 조선어사전편찬사업에 연관되어 함경남도 흥원 경찰서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 후 미군정청 구정장관, 민의원 의원 등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다가 6·25 당시 납북, 1965년 사망하였다. 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성삼문 (成三問)

본관 창녕. 자 근보(謹甫)·눌옹(訥翁). 호 매죽헌(梅竹軒). 시호 충문(忠文). 사육신의 한 사람. 1438년(세종 20) 생원으로 식년문과에 급제, 1447년 문과중시에 장원, 집현전 학사·수찬 등을 역임했다. 왕명으로 신숙주와 함께 <예기대문언두(禮記大文諺讀)>를 편찬하고 경연관이 되어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1442년 박팽년·신숙주·하위지·이석정 등과 삼각산 진관사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고, 한글의 창제를 위해 정음청(正音廳)에서 정인지·최항·박팽년·신숙주·강희안·이개 등과 함께 요동에 유배되어 있던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에게 13번이나 내왕하면서 음운(音韻)을 질의하고 다시 명나라에 건너가 음운연구를 겸하여 교장(敎場)의 제도를 연구, 그 정확을 기한 끝에 1446년 9월 29일 훈민정음을 반포케 했다.

1455년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 승·박팽년 등과 같이 단종의 복위를 협의했으나 모의에 가담했던 김질이 성사가 안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밀고, 이개·하위지·유응부 등과 함께 체포되어 거열(車裂)의 극형을 받았다. 이어 아버지 승도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극형에 처해졌고, 삼빙·삼고·삼성 세 동생과, 맹첨·맹년·맹종과 갓난아기 등 네 아들도 모두 살해되었다.

1676년(숙종 2) 홍주 노은동에 있는 그의 옛집 녹운서원, 1681년 육신묘가 있는 노랑진의 민절서원 외에 영월의 창절서원, 의성의 학산 총렬사, 창녕의 물계 세덕사, 연산의 총곡서원 등에 6신과 함께 제향. 1758년(영조 34)에는 이조판서가 추증되었다. 문집에 <성근보집(成謹甫集)>이 있다.

작전사령부 역사기념실 자료수집

작전사령부에서는 핵심전력으로서의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아가 21세기 미래 공군의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역사기념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역 및 예비역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관련 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증가능 품목은 ▶상패류 : 표창장, 훈장, 기장, 상패, 배지 ▶문서류 : 작전명령서, 출격명령서, 공군 주요작전 관련 일반문서, 신문, 비행 연구일지 ▶복제류 : 마후라, 파병복제, 공군초기 조종복, 모자류 ▶사진류 : 신문보도사진, 행사 관련 기념사진, 작사 창설 관련 보도자료 ▶기념품 : 개인 수집품, 코인, 기념패, 앨범 ▶기타 : KNEE-BOARD, CHECK LIST, 모형항공기 등이며 기증자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전화나 E-Mail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문의 : 031)669-5020, 칠)5020

인트라넷 : chanyeop@af.mil

인터넷 : chanyeop@dreamwiz.com



『군사교리연구』誌 원고모집

전투발전단에서는 항공우주력 발전과 선진 정예공군 육성을 위한 『군사교리연구』誌 제48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공군의 과제」를 기획주제로 선정, 장병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분량은 A4 30매 내외이며 원고마감은 7월 15일까지입니다.

문의 : 효)5757

월간 『공군』 독자카드 개선

월간 『공군』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88호부터 기존의 독자카드를 새롭게 개선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독자카드는 수신자부담 카드와 공군체송망 카드, 두 가지로 발행되며 독자의견란을 확대하여 여러분의 목소리에 좀더 귀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신자부담 카드는 우표를 붙일 필요 없이 그대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되며, 공군장병들은 기존 공군체송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①②③에 들어갈 낱말을 독자엽서에 적어 7월 19일까지 보내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다섯 분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달의 문제

1		2		6	5		7
③		3	4				
8	9		②			10	
			11				
	12	13			14		15
16		17 ①	18				
19					20		

지난호 정답 / 크로바

트	루	시	에		용			칠	레
로②				김	병	지		라	
피	버	노	바③			단		배	컴
		정						르	
		윤	정	환		해	트	트	릭
			몽		비	결			
	허		준		차		김		
해	당			삼		북	은	악	마
	크①	로	스	바			중		무
								승	리

퀴즈로! 퍼즐로! 당첨자

경남 사천시 수석동 336-22 부대정비대대 병장 김정환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27 21-2 홍현희
경남 진주시 망경남동 423-23 김지훈
충북 충주시 금가면 사서함 16 헌병대대 상병 정영관
서울 중구 신당동 845 한진그라빌 A 102-702 신정은

이번 호 퀴즈로! 퍼즐로! 문제는 제19전투비행단
지원대대 장병들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가로열쇠

- 건축물의 주자재. 일명 '쌌맨'
- 그리스의 선박왕. 그와 함께 했던 재클린 케네디, 마리아 칼라스
- 경북 안동의 특산물. 여름에 이것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시원합니다.
- 모든 길은 여기로 통했다지요
-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함
- 9·11 ○○
- 괴도 ○○
- 조선후기,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하면...
- 여자 텔레트. 가수 이승환과의 러브러브
- 앗싸! 거저 주는 문제. lob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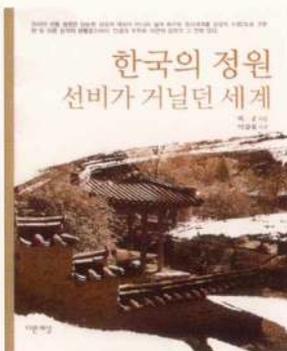
세로열쇠

-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아금아금을 뜻하는 순우리말
- 야구타선에서 3·4·5번을 뜻하는 클린업 ○○○. 본래 삼중주를 뜻함
- 나무의 나이는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세계 3대 영화제. 칸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 영화제
-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 하늘에 달을 듯한 건물. skyscrapers
- 참새가 여길 그냥 지나쳐?
- 파스칼의 저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라나요.
- 2001년 미 프로야구 MVP. 데뷔 첫 해 타격왕, 도루왕을 휩쓴 일본선수
- 공기의 78%. 화학기호 N
- 방정맞게 흔들지 않아도 이거 하나면 울 여름 시원합니다.
- 이종범이 전문으로 하는 야구범죄(?)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허균 지음·이갑철 사진/304쪽/도서출판 다른세상

이 책은 정원 속에 담겨있는 옛사람들의 사상, 정원에 놓인 경물들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정원을 거닐 듯 조심스럽게 풀어놓는다. 나무와 꽃, 바위 등 자연경관에도 의미를 부여해 자연경관을 인문경관으로 바꿔놓은 한국 전통정원의 상징세계를 깔끔한 편집과 자연스런 색감이 돋보이는 사진들로 고스란히 살려놓은 것은 이 책만의 강점. 소쇄원, 다산초당, 선교장, 초간정 등 대표적 전통정원 29개소가 눈에 밟힐 듯 펼쳐진다. 저자에게 있어 옛 정원은 당시 사람들의 욕망과 정신세계를 상징적 수법으로 구현한 또 다른 성격의 생활공간으로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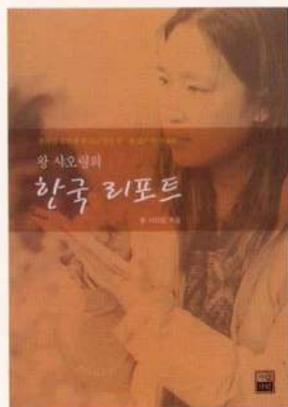
저자는 前한국정신문화연구원 책임편수연구원으로 문화유산 속에서 한국인의 미의식과 생활철학을 읽어내는 대중적 알리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왕 사오링의 한국 리포트/왕 사오링 지음/266쪽/가람기획

이 책은 경제대에서 한국 유학생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왕 사오링의 한·중비교론이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중국의 실상과 중국인의 저력, 그리고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한국인의 잘잘못을 꼼꼼한 시선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책은 그같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교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의 신분에서 강도 높게 비교하고 있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차이는 지나친 감도 없진 않으나 귀담아 들을 만하다.



2002년 예술의 전당 청소년음악회-위대한 동반자들

지난 1990년<청소년을 위한 음악산책>으로 출발해 <금난새와 함께 하는 음악여행>까지 재미있는 클래식음악의 길잡이로 사랑받아 온 예술의 전당 청소년음악회. 올해는 지난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위대한 동반자들>이란 테마로 우리들을 찾아오고 있다. 오는 7월 20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베토벤 :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 서곡, 교향곡 7번 3악장, 피아노 협주곡 5번 1악장, 교향곡 8번 1악장

▶ 모짜르트 :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교향곡

문의 : 02)780-6400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되어 이룬
 쾌거였습니다.

전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저력.

그라운드를
열정과 땀으로 적신
태극전사들.

경기장과 거리를
대·한·민·국
하나된 함성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들.

그리고
안전 월드컵과 함께 한
대·한·민·국·공·군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